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명박 정부의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

2017년

조 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이명박 정부의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조 은

이명박 정부의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

지도교수 강대중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조은

조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원장	한승희	(인)
부위원장	소경희	(인)
위원	강대중	(인)

국문초록

정부에서는 2009년 학부모 정책 전담팀을 만들고 종합적인 학부모 정책을 최초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에는 그 동안의 학부모 교육에 관한 총합본과 같은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이하 <기준>이라 칭함)이 등장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준>에 담긴 ‘기대하는 학부모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학부모 정책이 등장하게 된 이명박 정부시기 전후 맥락과 관련 문서들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를 다루는 새로운 지식과 틀의 등장, 학부모의 행동과 자세를 규율하는 새로운 방식 등을 보았다.

<기준>이 제시한 학부모상을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기준>이 한국 학부모 정책 및 교육에 있어서 최상위 문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상에는 교육과정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이 말하는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지는가? 둘째,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이명박 정부 내의 학부모 정책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연구 방법으로 비판적 내용 분석을 취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은 <기준>과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이다. <기준>에서 말하는 ‘기대하는 학부모상’과 관련된 용어나 개념이 무엇이고, 분석 대상인 다른 문서들에서 이 용어와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또 정부가 학부모 정책 관련 문서와 보도 자료들을 통해 말하는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이론적 근거들이 어떤 논의들과 연관되는지 함께 보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렇게 기술되게 된 맥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준>에서 제시한 7가지의 바람직한 학부모상¹⁾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었다. 1, 2상은 도덕적 선언으로써 학부모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

1) 이하에서는 편의상, 7가지 ‘기대하는 학부모상’을 ‘7가지 학부모상’, ‘바람직한 학부모상’으로 문맥에 따라 병행하여 표기한다. 또 7가지의 학부모상 각각을 ‘1상’, ‘2상’, ... ‘7상’으로 표기한다. (1 심신이 건강한, 2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3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4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5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6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7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

세와 도리를 명시했다. 3, 4, 7상은 학부모가 도달해야 할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5, 6상은 학부모의 궁극적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또 <기준> 내부에서 7가지 학부모상끼리의 불균형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2, 5, 6의 학부모상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3, 4, 7의 학부모상이 <기준> 전문에 고루 많이 드러났다. <기준>이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학부모 정책의 방향은, 학부모의 심신 치유 강조, 학부모의 학습 상황 형성, 학부모의 책임 실천, 학부모의 공교육에의 기여인 것을 확인하였다.

<기준>을 둘러싼 학부모 정책 자료를 대상으로 <기준>의 외부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편중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학부모 정책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임과 더불어 교육 참여의 책임을 지워 공교육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하려 했다. 또 해당 교육과정과 공교육에의 협조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회유 방법과도 연관된다. 학부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확대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들에서는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공동체 배려 등의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 자료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기준>에 나타난 학부모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 주도 학부모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의도에 대해 고찰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학부모 교육 관련 논의와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 분야에서 학부모 교육의 위상을 검토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학부모 정책,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학부모상, 바람직한 학부모상, 평생학습, 내용 분석

학 번 : 2014-20880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문제	10
4. 연구 의의	11
5. 연구의 한계	12
II. 관련 개념 및 선행 연구	14
1. 학부모와 학부모 교육	14
가. 학부모	14
나. 학부모 정책	15
다. 학부모 교육	17
라.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19
2. 관련 선행 연구	21
가. 학부모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21
1)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2)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25
III. 연구 방법	28
1. 연구 자료	28
2. 연구 방법	37
3. 연구 절차	41

IV. <기준>의 타당성 검토	44
1. 내부적 타당성	44
가. <기준> 내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45
나. <기준> 내의 학부모상 구조	48
1) 학부모의 심신 치유 강조	
2) 학부모의 학습 상황 형성	
3) 학부모의 책임 실천	
4) 학부모의 공교육에의 기여	
2. 외부적 타당성	62
가.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속의 학부모상	62
1) 교육 계몽과 공교육 협조의 강조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회유	
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속의 학부모상	75
1)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2)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	
 V. 요약 및 결론	 86
 참고문헌 및 분석자료	 91
Abstract	99

표 목 차

[표 II-1]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의 구성	20
[표 III-1] 1차 분석 대상 자료	31
[표 VI-1] ‘기대하는 학부모상’ 분류를 위한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	45
[표 VI-2]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기준>의 내부적 구조 ...	49
[표 VI-3]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등장하는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 ...	51
[표 VI-4] 학부모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학부모 정책 내용	58
[표 IV-5]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를 위한 <기준>의 내용 체계	60
[표 IV-6]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내부적 구조	64
[표 IV-7]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분석을 위한 단위 항목 ...	66
[표 IV-8]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	67
[표 IV-9]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학부모 정책 내용	72
[표 IV-10]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분석 대상 목록	76
[표 IV-11]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의 구조 ...	77
[표 IV-1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들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 분류 ...	78
[표 IV-1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학부모 교육의 내용과 범위 ...	80

그 립 목 차

[그림 Ⅱ-1] 학부모 정책 비전 및 정책 목표	17
[그림 Ⅲ-1] 1차 분석 대상 자료의 흐름	30
[그림 Ⅲ-2] 주요 분석 대상 자료의 층위	32
[그림 Ⅲ-3] <기준>의 내·외부적 타당성 분석 구조	42
[그림 Ⅳ-1] 학부모 학교 참여 공모분야	84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 학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들은 다양하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형편이 가난하더라도 자식들만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것을 고집한다.”¹⁾며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열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값비싼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열의를 가졌다. 하지만 에듀 푸어(Education Poor)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살기 어려운 사람, 교육 빈곤층을 의미한다. 자녀 교육과 뒷바라지에 등골 휘다 못해 부러지는 부모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책의 제목도 <에듀 푸어>이다. 이 책에는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부모들의 안정된 미래생활조차 흔들리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결국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눈 여겨 본 한국의 에듀 푸어들은 지나친 교육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단어는 교육에만 투자해 가정의 소비 형태가 불균형적이어도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는, 학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또 다른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 부모>²⁾이다. 교육으로 병든 아이들과 가정에서 실종된 부모들의 자화상이 글 하나하나에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학부모정책 전담팀을 만들고 종합적인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라는 비전 아래,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

1) 2009년 12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교육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교육열과 배움의 자세를 말한 사례의 일부분이다. 파이낸셜뉴스(2009.12.06.) 기사 ‘오바마 한국 교육열 끝없는 사랑’에서 일부 발췌함.

2) 이승욱 외(2012)가 집필한 <대한민국 부모>라는 도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모 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라는 중점 추진 과제를 내세웠다. 이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교육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학부모들을 교육대상으로 만든 것일까? 국가가 주도하는 학부모 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는 학부모 정책, 든든한 학부모 바람,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선진화’ 등으로 명명한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 교육과정을 내세웠다. 또한 학부모 정책 추진 방법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명시했다. 평생교육에서의 학부모 교육 비중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기관의 학부모 교육 관련 콘텐츠 보급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과제도 세웠다.

왜 이명박 정부에서 학부모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 많아지고 정책적인 관리가 시작되었을까? 이 연구는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된 흐름은 무엇인지, 학부모 정책 추진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창조적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국가, 인재대국, 활기찬 시장경제’의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교육 정책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인재대국’ 항목에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국무총리실, 2008).

이처럼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많아지던 2010년, 학부모와 부모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가 등장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 공익광고³⁾는 당시 정부가 학부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불특정 대다수의 국민들이 학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 앞으로 대한민국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보이기를 바라는지가 나타나 있다.

위 광고는 부모의 모습을 둘로 나누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과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로지 성적과 목표에의 도달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와,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마음의 보살피는 ‘부모’로, 부모의 모습을 이분화 한다. 이 광고는 광고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 역할에 경종을 울렸다고 한다. 제작자들은 성적과 입시에만 매달리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찾던 중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0).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로 잡기 위한 의도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부모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학부모 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운영하게 하였다. 2011년에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곳곳에 시·도 학부모지원센터가 점차적으로 생겨났다.⁵⁾ 국가적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과

3) 공익광고협의회(2010). 부모와 학부모 공익광고. 해당 광고의 멘트 전문을 그대로 옮겼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http://kobaco.co.kr>).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안 답변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0)에는, 학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 담긴 부모-학부모 비교 광고에 대해 수정 및 금지 요청을 담은 제안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 대책팀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답변이 담겨 있다. 해당 제안서와 답변서가 제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과 해당 제안서와 답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blog.naver.com/socrazyfree/40108241988).

5) 2011년 2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출범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학부모지원센터와 9개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부모지원센터가 생겼다. 지역별로 시 단위의 학부모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한 경우도 있다. 상세한 현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parents.go.kr/>)의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성을 말하며, 총체적인 학부모 관리에 나선 것이다. 또 학부모정책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학부모정책연구센터를 서울대학교에 두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가정 역할 정립 등을 가능하게 할 학부모 정책을 연구하고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에 대해 깊이 조사하여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해당 센터의 설립 목적이었다.

2012년 12월에는 그 동안의 학부모 정책 및 학부모 교육에 관한 종합 본과 같은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이하 <기준>이라 칭함)이 등장했다. <기준> 개발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기준>은 학부모 교육과정의 기준을 세워 학부모 교육 현황을 총망라하고 대한민국 학부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총론에는 학부모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구성 방향과 내용 체계와, 한국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모습(학부모상) 7가지가 담겨 있다. 심신이 건강하며, 평생학습을 통해 지혜로우며,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 등이 <기준>에서 제시한 학부모상이다.

정부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학부모지원센터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학부모정책 중점연구소⁶⁾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집중되었다. 임기 말에는 <기준> 개발을 통해 학부모 교육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학부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문서가 실제 학부모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최상위 수준의 기준으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본 문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

6)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http://family-school.snu.ac.kr>)는 2011년 6월 학부모 정책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족의 자녀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교육부, 1997: 5)로써 분명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사고방식과 공동체 경험 등을 교육 내용으로 포괄하여 학습자의 교육 경험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교육부, 1997)인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학부모 교육을 통해 이루려는 교육적 성취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써 학부모 교육을 보았다. 누구든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정해진 시기의 특정 교육기관에서의 학습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평에서의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가 요구되며 사람들은 이를 필요로 한다. 학습의 기회는 다양한 교육 제공자들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여러 방식으로 제공된다. 평생교육은 유아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적 범주와 더불어, 형식과 비형식, 그리고 무형식 교육의 모든 형태와 장소를 포함한다.⁷⁾ 그렇기에 변화하는 사회 속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그 모습과 형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린드만(1926: 4)은 “교육은 곧 삶 그 자체”라는 전제를 세우고 “끝없는 교육에 대한 도전”을 성인교육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나 시기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가지는 원숙함을 성인교육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성인의 학습에 있어서 준비된 상태는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발달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haran B. Merriam, 2014).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은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각 상황과 발달 단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자녀 성장 과정과 관련된 과제뿐만이 아니라 가족계획, 부모 기술의 습득, 변화하는 사회조건 속에서의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가정이 가진 기능과 구조는 변화하

7)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김종서 외, 2009).

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가족 구성원 각각의 고정된 역할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 환경이 달라지고 가족구조가 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많아졌으며, 남성들도 가정과 자녀를 돌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도 달라졌으며 기존의 방식대로 가정 내에서만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생겨났다. 새로운 사회 변화가 반영된 가정 상황과 가족에 관하여 배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부모 교육을 부모 역할 수행과 관련지을 수 있다. 다방면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부모 개개인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가정 밖의 기관으로 역할 분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자녀 교육을 일임하기도 하고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월하게 얻기도 한다. 하지만 가정과 학부모가 가진 역할을 나누어 보조하는 기관과 수단들이 있음에도, 자녀 인생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학부모이다. 교육기관이나 현장에서 만나는 단기간의 교사들과 달리,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자녀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 평생의 교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학부모의 원활한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부모 교육을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에 담긴 ‘기대하는 학부모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학부모 정책이 등장하게 된 이명박 정부시기 전후 맥락과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학부모를 염두에 두고 처음으로 별도의 정책팀과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마련한 시기가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학부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투자, 교육 여건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은 변화이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정책과 행동방침이 특정한 관점으로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학부모를 다루는 새로운 지식과 틀의 등장, 학부모의 행동과 자세를 규율하는 새로운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중심에 <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학부모상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기준>이 한국 학부모 정책 및 교육에 있어서 최상위 문서로써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⁸⁾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육지원 센터 등에서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이고 가치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교육받은 학부모에 대한 인증체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는”(홍후조 외, 2013: 174) 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기준>의 개발은 학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함과 더불어, 이후 한국의 학부모 교육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에 발행된 <학부모교육 업무매뉴얼 2013>에서는 학부모 교육의 목적을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정립으로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서 언급한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기준>의 학부모상을 지칭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준>은 2016년 현재까지도 학부모 교육에 있어 가장 상

8) <기준>은 2009년의 학부모 정책에 그 시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사교육 열풍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 등이 있을 뿐이었다.

위에 위치한 문서이다.⁹⁾

둘째, 인간상에는 교육과정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요소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그려내는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집중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해당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상에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특징이 담겨 있다. 인간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 교육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삶이 처한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알 수” 있다(교육부, 1997).¹⁰⁾ 다시 말해 교육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인간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학부모상’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가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는 착한 부모와 나쁜 학부모라는 극단의 이분법적인 표현을 통해 학부모의 열정과 적극성이 무조건 잘못되었고 교정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이종각(2014)은 해당 광고에 강자인 정부가 약자인 학부모를 계몽해내고 깨우침을 전해주려는 일종의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의 낮은 위상과 부정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해당 공익광고는 학부모의 이미지를 더욱 더 부정적으로 심화시켰으며, 교육에 대해 정부가 가진 책임을 은연중에 모두 학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자인 정부가 권력을 앞세워 약자인 학부모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시선은 진정한 학부모 정책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물론 교육열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도하게 표출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다.¹¹⁾ 하지만 자녀에 대한 진심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2016년 10월)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받았다. 2012년에 개발된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이후로는 학부모 교육과정을 총 망라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교육과정 문서 개발이나 기존 교육과정기준의 개정 사실이 없다. 또한 2013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학부모교육 업무매뉴얼 2013> 또한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고 언급했다.

10) 교육부(1997). 교육 과정의 구성 방향 중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한 설명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교육적 인간상(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설계 과정을 교육과정 개정에 빚대어, 교육받은 인간의 특성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11)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학부모 담론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진숙(2011, 신숙자 2016: 67에서 재인용)은 교육열을 과열, 부분

을 담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자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은 그 부모라면, 보호자라면 가지고 있을 본능적인 행동이자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이다. 학부모는 종종 내 아이밖에 모르고 과도한 자녀 교육 욕망을 불태우며 왜곡된 교육열을 표출하는 존재로 설명된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한국 교육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여겨지게까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각·황성희(2016: 53)는 “학부모의 정체성은 자녀의 출세만을 추구하는 학부모,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학부모, 과도한 교육경쟁을 유발하는 학부모 등으로 축소 편향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건전한 교육 시민으로서 학부모의 정체성은 감추어지고 부정적인 정체성만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정책의 결과물인 <기준>은 학부모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와 학부모를 나눈 공익 광고와 같이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거나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를 국가에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냉각, 완전냉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일부 계층은 오히려 교육열이 냉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자율지향적인 완전냉각 교육열 유형의 경우에는 진로와 성적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위임하고 학부모는 현실적인 투자를 돕기만 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지는 않는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이 말하는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지는가?

7가지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있게 한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보고서 및 <기준>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의 내부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이명박 정부 내의 학부모 정책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기준>을 둘러싼 학부모 정책 자료를 대상으로, <기준>의 외부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학부모 정책이 대외적으로 활성화 된 정부 기간(이명박 정부, 2008.02-2012.02) 동안 발표된 <2009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정책 문서와 학부모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 연구 의의

이 연구는 <기준>에 나타난 학부모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기준>이 제시한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내·외부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 학부모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의도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종각(2016)은 현재 한국 사회의 학부모에 대한 담론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며,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국가나 교사에 대한 담론의 거대함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가 학부모 담론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학부모 교육 관련 현장에서 학부모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부모 교육의 방향성을 성찰하여,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교육개혁 방안과 관련지어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김천기, 2009; 백우정·최종덕, 2011; 안선희, 2013). 교육정책 전반이나 평생교육 정책 이행에 관한 분석들(주영호·박균열, 2012; 최운실, 2008)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해당 정부시기의 학부모 정책을 언급한 연구(이현아, 2012)가 있었지만 학부모 정책이 중심이 되는 연구는 아니었다. 가족 정책과 학부모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두 정책의 내용 측면을 비교 분석하고 연계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이었다.

이 연구는 학부모 교육과정과 학부모상을 다룸으로써 교육과정과 인간상 관련 연구 분야에 학부모라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 관련 연구들은 개정 교육과정 또는 학교급별 차이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특정 교과목 내에서의 주제 분석이나 교과서의 구성 체계와 관련한 내용 분석들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의 3주체 중 하나로 불리는 학부모를 중심에 두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 학생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낸 국가나 교과서에 대한 접근이 주

를 이룬 것이다. 인간상과 관련한 연구 또한 언론매체나 문학작품 속에서의 인간상을 분석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학부모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는 없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 진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홍은숙, 2015)이나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 목표 개선에 관한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나 국가였다. 학부모 교육과정 연구는 학부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학부모 교육이 가지는 위치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특정 교육기관과 특정 시기, 자녀의 소속 교육기관에 제한된 학부모 교육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로서의 학부모의 존재를 바라보고 이에 따른 학부모 교육을 다시 보려는 시도는 평생교육 연구의 주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5. 연구의 한계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된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는 연구진끼리의 의견 수합에 불과하다고 해당 연구 보고서 초입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협력진의 구성¹²⁾과 현재까지 학부모 교육과정 전반의 최상위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과 실제적인 학부모 교육에 <기준>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또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과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육지원 센터 등에서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이고 가치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받은 학부모에 대한 인증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하

12)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의 협력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부모 연합, 학부모연대, 학부모모임, 한국지역사회협회의 등의 구성원으로 꾸려져 있다.

는데 그 목적이 있다”(홍후조 외, 2013: 174)고 밝혔기에, 해당 <기준> 개발 연구가 학부모 정책과 관련 학부모 교육에 끼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과 <기준>이 처음으로 생겨난 이명박 정부시기(2008.02.25.-2013.02.24.)에 중심을 두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학부모 정책 흐름이나 변화는 직접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전후로의 학부모 정책 중에서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는 변화들은 가능한 염두에 두고 반영하려 하였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교육과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르다. 부모 교육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7년 현재의 학부모 정책은 교육부 산하 학교 정책실 아래의 학교 정책관에 있는 공교육 진흥과에서 학부모 지원팀의 형태로 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학부모 교육 정책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두 부처의 협력 관계에서 오는 정책까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 학부모가 부모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기에 학부모 교육도 부모 교육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학부모에만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 관련 개념 및 선행 연구

1. 학부모와 학부모 교육

가. 학부모

본 연구의 중심 개념은 '학부모'이다.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학부모와 부모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부모(父母)의 영어 단어 parent는 give birth라는 어원을 가진다. 자녀를 태어나게 해준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양이나 조손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다면 부모란, 혈연관계로 맺어진 생물학적인 부모와 상황적인 부모 모두를 포함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한자어 학(學)과 부모(父母)가 만나 생겨난 단어인 학부모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풀어보면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뜻한다. 쉽게 말하여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 2장 제 13조에서는 보호자에 관하여 “①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 3)는 “자녀를 교육기관에 위탁한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공교육의 주체이자 동반자”를 학부모로 정의하며, “자녀가 교육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기간이 부모를 학부모로 특정 짓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경아(2010: 36)는 “자녀가 유아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을 막론하고 자녀를 교육기관에 위탁한 사람”을 학부모로 보았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학부모와 부모의 용어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

지만, 이상의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학부모를 자녀의 교육과 관련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종각(2014)은 “교육권재학부모(教育權在學父母)”의 용어를 사용하며, 교육권을 가진 존재로서 학부모를 이해하려 했다. 이종각(2014: 33)이 사용한 교육권재학부모(教育權在學父母)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교육권이 학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하여 그는 “학부모가 지닌 교육권을 위임받아 국가와 학교,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가 합당한 지위와 대접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와 이경아(2010)는 교육기관에의 위탁 여부를 기준으로 학부모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 학령기 자녀를 위탁하지 않고 가정에서 스스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홈스쿨링의 형태로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 자녀 교육을 계속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 역시 자녀 교육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학부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넓게 보고자 한다. 학부모란, “자녀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을 받는 시기 동안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보호자”이다.

나. 학부모 정책

1950년대 해방 이후의 시기부터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은 있었다. 학교 시설 복구와 후원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후원회는 사친회, 기성회 등으로 형태와 이름을 바꾸어 가며 이어졌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 시기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금전적 지원을 주로 하는 수동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육성회, 학부모회, 학교운영회로 이어지며 점차적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가 생겨났다. 1997년 제정·공포된 교육기본법에서는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와 보호자의 자녀 교육 권리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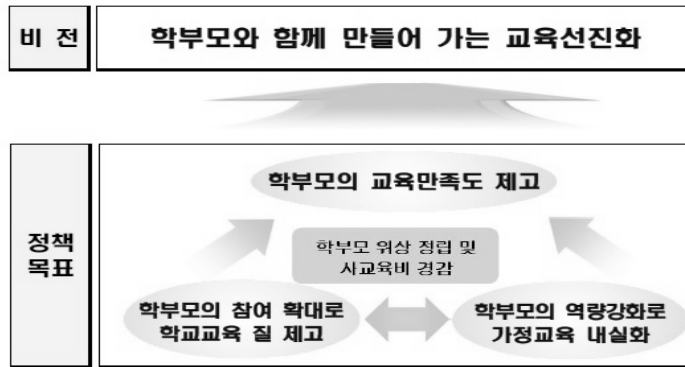
임을 명시하여, 학부모가 과거보다 많은 역할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에 비하여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표한 학부모들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2009: 5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진로지도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학부모 비율은 50.3%로 절반을 차지했다.¹³⁾ 핵가족화,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등의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하여 대가족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자녀교육 기능은 약화되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자녀와 부모가 몸담고 있는 가정은 휴식처와 같은 정서적 안정, 자녀 양육 및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정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면,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는 사회로, 나아가 국가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교육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건강한 모습을 가진 가족은 앞으로의 변화와 위협에 대처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위험한 가정은 안정된 모습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이라는 지원책이자 예방책이 필요해진 것이다(홍후조 외, 2012).

2009년 5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 정책 전담부서가 생겨났다. 학부모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 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가 중점 추진 과제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전담 부서 설치로 학부모 교육 지원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기대도 품고 있었다.

13) 교육과학기술부(2009: 50)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2008년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매우 높으나, 실제 자녀학습방법, 진로지도방법, 자녀인성지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1> 학부모 정책 비전 및 정책 목표(교육과학기술부, 2009: 8)

2011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센터는 학부모 정책 개발 지원, 공신력 있는 교육 정보 제공, 학교 참여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 상담서비스 지원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후 학부모와 관련된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2017년 현재의 교육부에서는 학부모 정책 아래 학부모 참여, 학부모 교육,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하위 범주를 두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다. 학부모 교육

조용환(2011)이 다문화교육이라는 합성어에 접근한 방식을 빌어, 학부모 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은 내용과 방법, 상황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학부모를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학부모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학부모라는 대상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을 한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부모적으로 교육한다는 접근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학부모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상황에서 교육한다는 교육 상황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기존의 학교와 교사 중심 상황에서 벗어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 현장에 학부모를 초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학부모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기존에 이루어진 학부모 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 5)는 “자녀를 교육기관에 위탁한 학부모가 자녀교육 및 학업, 진로 선택, 학교 생활 등과 관련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정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참여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및 교사와 동반자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식과 태도 및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학부모 교육으로 보았다. 학부모 교육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가 익혀야 할 지식들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써의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정책 중점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이기에, 해당 정의를 통해서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서현석(2014: 369)은 학부모 교육을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부모교육과,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써 확산된 자발적인 성인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의] 한 주체로서 공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에 기여하는 학부모 참여 정책 등 세 가지 관점이 통합되는 지점에서 실천되는

14) 조용환(2011: 9)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교육’이 만난 합성어라고 하며, 이에 “(1) 다문화를 교육한다, (2)다문화적으로 교육한다, (3)다문화 상황에서 교육한다”는 세 차원의 의미 규정을 덧붙였다.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교육 내용, 교육의 접근방법, 교육 상황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고, 방법과 상황으로서의 다문화 강조 필요성을 밝혔다. “(1)에서 다문화는 교육의 내용이다. 단일 문화가 아닌 다수 문화를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2)에서 다문화는 교육의 접근방법이다. … 다문화교육은 교육에 대한 전통적 접근이 아닌 모종의 새로운 접근을 시사한다. (3)에서의 다문화는 교육상황이다. 문화적 동질집단이 아닌 이질집단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의미한다.”

교육의 한 영역”으로 보았다. 학부모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가 성인 학습자로서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가정에서의 부모교육과 사회에서의 평생교육, 학교에서의 학부모 학교 참여의 세 영역이 만나는 교집합 지점에 학부모 교육을 위치시켜 학부모 교육의 특수한 위치를 제시하였다.

홍후조 외(2013: 173)는 “학부모 교육은 부모 교육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래 친구와 교사와의 원만한 학업 및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비중을 더 두는 편”이라고 말했다.

라.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이명박 정부에 들어 학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기관, 교육 현장, 시설, 방법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홍후조 외(2013: 172)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50개 지역에서 4000여 개의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들이 “중복과 혼란, 낙차, 비약, 학교급 요구나 수요자 요구를 무시한 제공자 위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우후죽순식 팽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돈된 학부모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학부모 교육의 비전 제시와 정책적 지원 확대에 따른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홍후조 외(2012)의 연구진들은 학부모 연구의 필요성과 현황 등의 관련 내용을 총체적으로 망라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한민국 학부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한다는 목적을 세웠다.

<기준>은 성격과 목표, 기대하는 학부모상,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세부 교육 강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	→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육 내용		
목표		부모·가정 (학부모)	취학전	초 등 저 학 년	초 등 고 학 년	중 학 교	고 급 학 교	
기대하는 학부모상								자녀·자녀 친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학교·교사 (학교)						

<표 II-1> 학부모 교육과정 기준의 구성

내용체계는 ‘부모와 가정(학부모)’, ‘자녀와 자녀친구(학생)’, ‘학교와 교사(학교)’의 세 가지 대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부모 영역은 부모의 역량 강화와 가정의 교육력 강화라는 중영역을 가진다. 학생 영역 아래에는 특성 이해, 생활 습관 형성, 경험 공유, 청소년 문제 대처의 중영역이 있다. 학교 영역은 학교 교육활동 이해, 교사와 협력, 교육 참여, 정책 이해라는 중영역을 가진다. 각각의 중영역 아래에는 강좌 주제와 연관되는 소영역들이 포함되며, 자녀의 학교급별마다 다른 성취기준과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한국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모습(기대하는 학부모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신이 건강한 학부모, 둘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학부모, 셋째,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 넷째,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학부모, 다섯째,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학부모, 여섯째,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학부모, 일곱째,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홍후조 외, 2012: 140)이다.

2. 관련 선행 연구

학부모 관련 선행 연구들은 교육과 계층 형성,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학부모 연구에 관한 새로운 관점 전환과 더불어, 병리적 모습을 가진 교육 현장을 학부모 교육,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연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학부모 교육에서 제시된 한국의 학부모상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본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정책 연구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있었던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개별 교육 정책을 다룬 연구들, 또는 두 개 이상의 정부 정책 비교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학부모 정책과 교육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학부모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량이 적고 넓은 범위나 심도 있는 깊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은, 다시 말해 해당 교육주체에 관한 담론이 소극적이며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뜻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본 연구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가. 학부모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1)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인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다. 이정호(2010)은 학부모지원의 필요성을 밝히 자녀가 닳게 될 학부모의 모습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를 배우는 부모로 해석하여, 학부모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학부모 요구 분석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박효정(1999)은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용 읽기자료의 개발 필요성을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서 찾았다. 매년 또는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이나 담당교사와 달리, 학부모는 자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김승보(2015)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현실을 분석하여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학부모 참여 구조, 부실한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 주도의 교육 활동이 제한된 정책적 구조를 문제점으로 말하였다. 그 대책으로 학부모 지원체계를 학교에서 확대된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정립할 것과 학부모 참여활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화할 것, 학부모에 대한 학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봉제(2015)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맞벌이 가구를 일반화된 모습으로 보고 그 특성과 관련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하고, 맞벌이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그들의 제한된 학교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 참여 유형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교 참여 정보 제공, 관련 지원법 제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맞벌이 부모를 위한 학교 참여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서현석(2014)은 학부모 교육의 의미를 자녀교육과 자발적인 성인평생 학습, 공교육에의 학부모 참여의 3가지 범주에서 찾으려 하며 한국 학부모 교육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부모 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확대하고, 자녀와 공교육 발전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것, 학부모를 학부모 교육의 주체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한국 학부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이라고 말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주체로서의 학부모 입지 개선 방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논하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그들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미미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시간 선택권이 다양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의 진행이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등 현장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었다.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시선에서 교육현장과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5)는 학부모회를 통

한 학부모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제안,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등 학부모의 시선에서 법과 제도를 다시 보려했다. 학부모 지원센터 내실화 추진, 학부모 학교 참여 정착을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인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 학부모가 교육현장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종각(2016)은 교육패러다임이 전환기에 서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2차 교육혁명기의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교육에 있어서의 역할이 중대하므로, 교사가 학부모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은 직무상에 있어서도 필수라는 것이다. 또 교육계에서의 학부모 담론 상황을 짚어보며 학부모의 위상이 빈약하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해나가는 협력적 교육문화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그려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육정책연구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들 중 학부모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교육과 계층의 연관성,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과도한 교육열과 교육 현실의 병리적 현상을 학부모 교육, 제도 개선 등 국가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순남(2010)은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교육 대책에 대하여 교원 및 전문직에서는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중요시한 것과 다르게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책 중의 하나로 학부모 정보 제공 활성화 및 인식 전환 유도를 제시하였다.

최상근(2009)은 학부모 지원 정책의 기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 지원 정책 기반 구축을 통한 학부모 교육 지원,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 서비스 강화 등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학부모 교육 지원 과제 아래에는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교육 기회의 확대, 학부모 리더의 양

성 등이 있는데, 일련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학부모 역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부모와 학부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기존의 유아 교육과 관련하여 조기교육, 부모의 양육 태도 등 유아기에 머무른, 부모 역할과 부모 교육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다양한 학부모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하였고, 교육부나 지역교육청 등의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¹⁵⁾ 학부모 교육 사례를 분석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결과에 대해 논하는 연구들은 소수이다. 소통과 대화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전애영(2010)은 학부모 역할의 연장선에 있는, 탄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부모, 자녀, 부부 각각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적 적용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성장이 가족의 성장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장경원·이종미(2014)는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행복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긍정적 탐구를 활용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학부모 교육 방법론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이다. 진정숙(2014)은 경기도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 교육의 현황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학교 참여와 이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자녀 이해, 자녀 학습 및 진로 지도, 평생교육’의 4가지 유형이 시대적 흐름이나 학교급,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폈다. 2009년 학부모 정책 실시 이전에 학교 참여와 이해

15) 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사이트(학부모온누리)를 통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배포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교육에 6가지 하위 주제를 두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안내서를 개발했다.

유형의 학부모 교육이 가장 많았지만, 정책 시행 이후에는 그 주요 유형이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였다. 그 변화의 요인은 정책의 강조점이나 학교 폭력 등의 사회적 이슈에서 찾고 있었다. 또 농촌지역의 특성과 가족 구성을 고려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성희(2015)는 교육학의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는 <교육학연구> 학술지에 담긴 학부모 관련 연구의 주제를 1980년대 이후의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학부모의 특성이나 배경을 다룬 연구들이 전체 연구(73편)의 90% 이상(67편)을 차지한 반면, 학부모 정책 및 제도,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들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련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으며 연구대상도 유아기에 제한되어 있었다.¹⁶⁾ 한국 교육열이 정점에 달하는 수능시기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선행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음은 안타까운 점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과정에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확대되고, 관련 교육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 교육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해당 정부 출범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정책 관련된 자료들을 탐색해 보았으나, 학부모 교육에 온전히 관점을 두어 분석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해당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거나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었다.

최운실(2008)은 평생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어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16) 황성희(2015: 273)는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한 3편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두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중요성, 필요성, 프로그램의 효과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유치원 학부모들이나 유아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분석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다.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계획을 상위 범주인 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전략 속에서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점을 밝혀 앞으로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반상진(2013)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들을 중심으로 교육 갈등 현상을, 교육거버넌스의 하위 개념인 정책의 권한구조와 의사결정방식, 권한 운영방식에 따라 분석했다. 교육부가 밝힌 성과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여, 좋은 교육거버넌스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가장 약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 주체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덧붙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책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함에 있어 넓은 시야를 제시해주고 있다.

주영호·박균열(2012)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육정책 공약 이행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학부모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초·중등교육의 대분류 아래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동참하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정도의 설명만 덧붙이고 있었다. 평생교육 분류에서는 평생학습계좌제와 2080 평생학습 플랜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학부모 교육 이행도에 관한 분석은 없었다. 안선희(2013)는 정책논변 모형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실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과 달리 사교육비가 증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백우정·최종덕(2011)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나타난 공교육 강화 조절 피드백과 사교육 흡수 조절 등의 피드백 루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사교육비 정책을 평가하였다. 원인과 결과의 순환 고리 속에서 시스템사고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 사교육비 지출 특성을 간과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공교육과 사교육 관계 설정의 모순을 가져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학부모들의 교육관이

바뀌고 사교육과 공교육이 함께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깔려있는 공교육부실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김천기(2009)는, 우리나라의 공교육부실담론이 결국 “공교육이 학원 사교육에 비해 입시교육능력이 낮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교육처럼 학생들의 입시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개혁의 관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 개인의 높은 학력이 한국의 세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 방향에 의심을 가지고, 공교육이 부실하다는 판단 자체가 이미 사교육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임을 추적하여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¹⁷⁾과 학부모 교육을 연관 지어 본 것이다. 이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사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 성과, 경쟁, 고객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교육 정책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기 시작했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범주에 대해서도 수치화하여 성과를 매기기 원했고 그 결과는 자연스레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교육의 참여자를 잘 보여야 할 고객으로 모시게 되면서 본래의 교육적 가치가 바래지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의 적용이 어울리지 않는 교육 분야에 무리한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상명하달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2009년 학부모 정책이 시작된 이후, 2012년 한국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학부모 교육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부모 교육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이 나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의 총론 부분에서 제시된 '기대하는 학부모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외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의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과 방향을 반영한 자료들을 우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또 최초로 학부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발행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학부모 교육의 역사적 맥락과 <기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부모 정책', '학부모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는 정부 간행물과, 학부모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전반적인 국가정책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통령 후보 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료,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교육개혁과 관련된 국정백서인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제 9권>을 참조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2009년도의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2012년도의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 자료는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 교육 전반의 목표와 추진 경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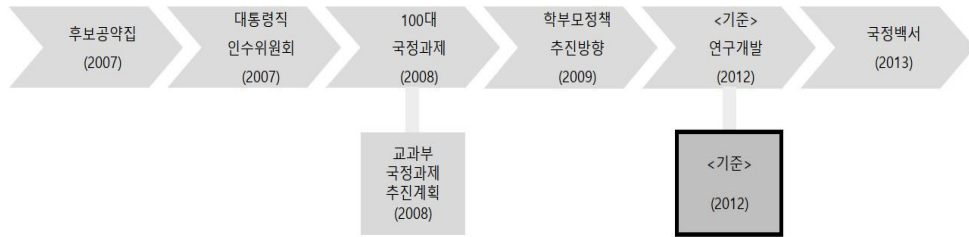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의 교육관련 담당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세세한 학부모 정책 추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2009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과 해당

부서의 보도 자료를 주로 분석하였다. <기준>에 담긴 학부모상을 둘러싼 학부모 담론을 보기 위해 해당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 보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7개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표현해 낸 담론을 보고자 함이다. 정부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는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되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으며 뚜렷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숨기려는 여부나 목적의 직접적인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묻어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압축적이고 쉽게 풀어놓은 기사거리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전파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담론은 사회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구성되면서도, 반대로 담론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특성을 가진다(최윤선, 2014: 22). 그렇기에 보도 자료의 텍스트와 흐름을 분석하면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과 <기준>에 담겨 있는 특정 관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 중, 학부모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거르기 위하여 먼저 ‘학부모’ 키워드 검색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학부모 정책이나 교육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검색에서 제외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에, 이명박 정부 기간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검토하였다. 제목이나 목차만 보아 모호한 경우에는 원문을 보아 학부모 교육과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 보도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학부모 교육 추진사항들을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 후속연구들도 검색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보도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백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학부모 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기준>과 이를 위한 연구 개발 보고서는 교육부의 정책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학부모와 관련된 정보들을 폭 넓게 수용하려 했지만, 미시적인 학부모 교육 내용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관련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에 관한 접근은 본 연구 문제와 관련이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1차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들은 다음 <그림 III-1>의 흐름

을 가진다. 이명박 정부 전반의 교육 정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 전 후보공약집부터 퇴임을 앞두고 출간된 국정백서까지 모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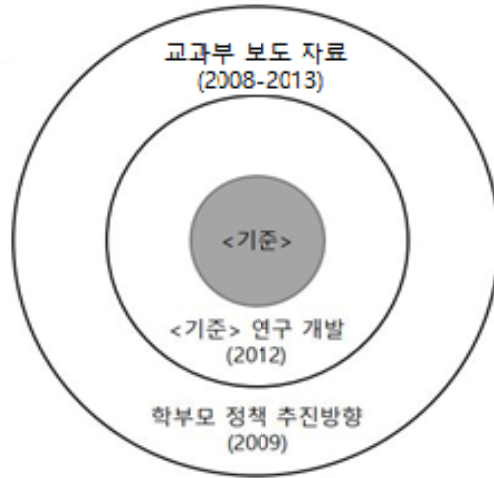
<그림 Ⅲ-1> 1차 분석 대상 자료의 흐름

상세한 1차 분석 대상 자료들의 목록은 <표 Ⅲ-1>과 같다. 굵은 글씨의 자료들은 연구 주제에 맞추어 보다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분석되는 대상이다.

<표 III-1> 1차 분석 대상 자료

자료 종류	발행처	발행 연도	자료 제목
보도 자료	교육 과학 기술부	2008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학부모서비스 포털사이트
		2009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행정업무 보조인력)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사업 추진
			학부모 정책의 청사진 제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2010	우수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공모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체제 혁신 방안 마련
		2011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 표창 및 발표회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통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출범			
2013	정부 정책 중점연구소 학부모 정책 연구센터 개소		
2013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잡이' 발간,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통		
정책 자료	교육 과학 기술부	2008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2011	2012년 업무보고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2012년 업무보고 참고자료 (주요 정책 사례집)			
국정 과제	국무 총리실	2008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정 백서	대통령 직 인수위	2007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2권
	문화체육 관광부	2013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제9권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후보 공약	한·나 라 당	2007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공약집
연구 자료	홍후조 외	2012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
		2013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들의 층위는 아래와 같다.



<그림 III-2> 주요 분석 대상 자료의 층위

위의 <그림 III-2>과 같이 본 연구의 중심은 <기준>이다. 홍후조 외(2013: 174)는 <기준>의 제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며 계획적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합한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연구 결과물이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의 “총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혔다. 지역교육청이나 기관에서 개발한 학부모 교육과정 지침서나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은 이미 <기준>의 영향을 받아 <기준>의 방향과 관점을 따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분석 대상 자료들을 고루 검토하고 분석하되, 그 중심에 <기준>을 두었다.

그리고 <기준>의 연구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한 선행조건으로써의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학부모 정책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후조 외(2012)의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 결과 보고서 127-131쪽에 실린 <기준>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옮긴다.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1. 성격

학부모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 양육을 바르게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학부모 교육과정은 학부모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자아실현과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부모 교육과정은 부모와 가족, 자녀와 자녀 친구, 학교와 교사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된다. 본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학부모 교육과정의 방향은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 영역의 구체적인 강좌나 실제적 체험활동은 학교나 지역의 학부모지원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모 중심의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목표

학부모는 자녀 양육 및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여, 자녀의 적절한 적성과 진로 발견을 돕고, 개인적·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자녀가 학교와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학부모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돕고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갖는다.

첫째, 부모됨의 의미를 알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이해하며,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정립을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녀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지식, 정서, 건강과 사회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셋째, 자녀의 친우관계를 포함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식, 태도 및 실천능력을 기른다.

넷째, 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교사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협조 및 지원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자녀를 미래의 전인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 제도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3. 기대하는 학부모상

학부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 1) 심신이 건강한 학부모
- 2)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학부모
- 3)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
- 4)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학부모
- 5)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학부모
- 6)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학부모
- 7)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

4.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기대된다.

- 1)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교육받을 권리
 - ② 교육정보를 알 권리
 - ③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④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할 권리

2)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① 자녀의 전인발달과 행복에 기여하는 양육 책임
- ② 유기, 방임, 학대 등으로부터의 자녀를 지킬 보호 책임
- ③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학습을 수행할 책임
- ④ 교육활동에의 참여와 기여할 책임

5.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학부모 교육과정은 현 단계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적 병리를 치유하고, 더 나은 교육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중점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학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 내 희망을 대리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를 유기, 방임, 학대할 권리가 없으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할 책임이 있다.

둘째, 학부모는 내 아이를 향한 교육열을 우리 아이들을 향한 교육적 열정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루는 존재로 양육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 학부모는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평생학습자로서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평생학습하는 학부모는 자녀의 역할 모범이 되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 교육공동체에 건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부모는 개인과 집단으로 자녀와 그 친구들이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따금 빚어낼 수 있는 청소년의 병리적 현상과 행동들을 예방, 진단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학부모는 교육 제도나 정책이 건전하게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코칭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3 대영역	10중영역	21 소영역 (강좌주제)	선정 배경
1. 부모·가정 (학부모)	1.1 부모의 역량 강화	1.1.1 교양 및 상식 함양	-부모로서의 자기 계발을 위한 기초적 지식 함양
		1.1.2 대인 역량·대화 역량 강화	-부모로서의 대인 역량, 대화 역량 강화
	1.2 가정의 교육력 강화	1.2.1 건강한 부부관계 및 가정의 교육적 역할 증진	-부모로서의 준비와 성장 -부모와 자녀간 상호 이해 및 소통
		1.2.2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행복 증진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자기 경영과 성장 -가정-학교-사회의 교육적 협력
2. 자녀·자녀 친구 (학생)	2.1 특성 이해	2.1.1 건강 증진	-신체 건강, 체력 발달, 운동 습관, 사춘기의 성적 발달 이해
		2.1.2 정서발달 이해	-감성, 정서, 의지 발달 및 순화
		2.1.3 인지발달 이해	-뇌·인지, 사고력·지력, 창의성·지혜의 발달 이해
	2.2 생활 습관 형성	2.2.1 바른생활습관 형성	-시간, 금전, 소비 등 바른 생활 습관 형성
		2.2.2 학습습관 형성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의 평생 학습자로서 학습습관 형성
	2.3 경험 공유	2.3.1 문예체 체험활동	-체험활동을 통한 가족 유대감 형성, 1체 1예
		2.3.2 진로·직업 체험활동	-직·간접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과 결정
		2.3.3 봉사활동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배려하는 삶
	2.4 청소년 문제 대처	2.4.1 학교폭력·왕따 대처	-또래 및 대인 관계에서 갈등 원인과 해소 방안 이해
		2.4.2 약물·반사회행동 대처	-술, 담배, 약물, 폭주, 도박, 가출 등 청소년 병리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
2.4.3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중독성 개전(個電) 기기의 올바른 사용	
3. 학교·교사 (학교)	3.1 학교 교육활동 이해	3.1.1 정규 교육활동 이해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이해
		3.1.2 방과후·주말·방학 프로그램 활용	-1지(직업기술, 전공), 1외
	3.2 교사와 협력	3.2.1 평소생활 협의	-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자녀 교육 효과 배가
		3.2.2 문제상황 협의	-청소년폭력, 학교에서 문제행동의 예방
	3.3 교육참여	3.3.1 교육 참여와 재능 기부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 -학부모 단체 활동 참여
	3.4 정책이해	3.4.1 교육제도 및 교과부·교육청의 교육 정책 이해	-각종 교육 제도, 정책, 중점 이해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교육과정 기준의 내·외부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준>의 학부모상이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정책 문서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 그 논리구조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텍스트 분석 방법의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된,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은 개념 및 의미를 지닌다.

“규칙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또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대니얼 라이프 외, 2007: 40).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의 특성, 의도, 구조 등을 체계적인 유목과 단위에 의거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코딩 규칙을 바탕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적은 수의 유목으로 분류하고 패턴이나 트렌드를 발견하는 등 구체적인 추론을 한다”(정승혜, 2015: 45).

다시 말해, 내용 분석은 명시된 메시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양적으로 기술·추론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내용 분석은 비판적 담론 분석의 분석 틀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기준>을 비롯한 특정 문서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텍스트를 확인하고 기술 및 추론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내용 분석은 확실히 정량화 할 수 있는 텍스트의 내용과 빈도에 집중하는 방법들로부터, 범주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수량화하는 절차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었다(스테판 티스처, 2000: 91). 하지만 무조건적인 정량화가 자료의 내용과 맥락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양적 내용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들도 고안되었다.¹⁸⁾

양적인 접근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상호배타적인 범주로 코딩하고 통계 처리하여 범주 간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둔다. 반면 질적인 접근에서는 주제나 패턴을 코딩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해석하는 데에 중심을 둔다. 대상 텍스트에서 정보를 뽑아내어 분석에 적절한 형태로 변형하여 분석을 해나간다는 점은 내용 분석 방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정승혜, 2015: 47-48).

내용 분석은 보통 표집, 분석단위의 규정, 범주 체계의 설정과 코딩, 분석과 평가의 절차를 가진다. 마이링(Mayring)은 질적 내용 분석에 있어 요약, 설명, 구조화¹⁹⁾라는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조합 가능한 분석 절차와 9단계의 내용 분석 과정을 제시한다. 자료의 결정, 텍스트가 발생한 상황의 분석, 자료의 형식적 특성화, 분석방향의 결정, 대답될 질문들의 이론적 기반에 의한 구별, 분석기법의 선택(요약, 설명, 구조화), 분석단위의 정의, 자료의 분석(요약, 설명, 구조화), 해석이 그 과정이다(Mayring, 스테판 티스처 2000: 10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우리는 ‘기대하는 학부모상’과 함께 관련 문서들을 내용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가 ‘학부모’라는 집단에 <기준>이라는 문서를 통해 새롭게 부여한 이미지와 진술들을 언어와 담론, 권력의 관계 속에서 보고자 한다. <기준>에서 말하는 ‘기대하는 학부모상’과 관련된 용어나 개념이 무엇이고, 분석대상이 되는 문서들에서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²⁰⁾를 주로 살펴보았다. 또 정부가 학부모 정책 관련 문서와 보도 자료

18) 질적 내용 분석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초기의 양적으로 자료에 접근하던 내용 분석의 범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용 분석의 다양한 절차들이 분석 목표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된 수단이나 과정 모두의 측면에서 방대하다는 점”이다(Merten, 스테판 티스처 2000: 91에서 재인용).

19) 요약(summary)은 “본질적 내용을 보존하는 방식에 의해, 그리고 원자료를 여전히 반영하는, 처리 가능한 언어자료를 창출하는 추상화에 의해 자료를 축약하려고 시도”한다. 설명(explicarion)은 “자료를 설명하는 것, 명확하게 하는 것, 주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조화(structuring)는 전통적인 내용 분석 절차와 유사하게 “자료로부터 특정한 구조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이에는 분석단위와 구조화 차원, 범주 체계의 결정, 코딩 처리와 결과 처리 등이 포함된다(Mayring, 스테판 티스처 2000: 103에서 재인용).

20) 교육과정 재개념화주의자인 파이너는 교육과정이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갖지 않음을 유의하고, “누가, 어떻게 지식을 구성하게 되느냐”에 교육과정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Piner, 김희연 2013: 523에서 재인용). 특정 시대의 특정 대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교육과정 바깥에서 지식의 구성에 대한 관망이 필

들을 통해 말하는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이론적 근거들이 어떤 논의들과 연관되는지 함께 보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렇게 기술되게 된 맥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문서에 서술된 텍스트를 비롯하여 말과 글이 모인 뭉치를 담론(discourse)이라 일컫는다. 담론은 “특정한 순간,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지식을 재현하는 방식으로서, 무언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제공하는 일련의 진술들의 집합”(Hall, S, 서덕희 2003: 56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담론은 “일상적인 담화로부터 문학, 사상, 지식의 체계로 표현되는 모든 언어들, 또는 언어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관습과 규범, 제도를 모두 가리키는 포괄적 개념”(이종각 2016: 175)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은 “언어적이고 이야기적이고, 문화적 요소로 구성되며,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나 재현, 주장을 담고 있다”(이기형, 2006: 110).

이정우(2005)는 담론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각각 맞물려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하나의 담론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함축한다. 물리학·생물학... 등의 담론들은 ‘과학자들’이라는 집단을, 시·소설·희곡... 같은 담론들은 ‘문학자들’이라는 집단을, 정치연설문·웹플릿·국회보고서... 같은 담론들은 ‘정치가들’이라는 집단을 함축한다. 담론의 다양성은 사회집단들의 다양성을 함축하며, 또 새로운 담론들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집단의 출현을 함축하는 것이다. 담론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집단이 특정한 담론을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담론은 사회로부터 구성됨과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하며, 담론 속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가 항상 존재하

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교육과정에 순차적인 과정과 단계를 부여하게 된다.

고 있다(최윤선, 2014). 본 연구는 학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학부모 정책 문서²¹⁾에 서술된 언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라는 대상을 보는 관점과 위치, 이에 얽힌 의도와 권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비가시적인 권력의 체계와 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작용한다.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배제의 메커니즘의 하나로 권력이 참과 거짓을 구분”해왔으며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과 위치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곽영순, 2009: 168)된다. 페어클로(2001)는 언어와 권력, 이념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언어가 사회의 일부이자 사회적 과정, 사회적으로 조건화 된 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구조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 사회적 실천관행으로서의 언어가 담론이라고 하였다. 복잡한 현 사회 속에서 언어에 가려진 이념적 작업을 통해 권력이 행사되고 권력의 목적이 달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헤쳐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 분석을 시도하되, 이와 같은 푸코 및 페어클로의 관점도 염두에 두고 언어와 권력의 작용도 생각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 정책 및 교육의 최상위 문서라 할 수 있는 <기준>에 담긴,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검토했다. <기준> 내부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7가지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구조적 타당성에 대해 다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부모 정책 관련 자료에서의 7가지 학부모상의 편중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분석 대상은 연구 주제에 맞추어 교과부가 학부모에 초점을 두어 계획 및 시행한 학부모 정책 자료인 <2009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과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학부모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로 한정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 정책과정이 대외적으로 활성화된 시기 동안의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향하고자 한 학부모의 모습이 무엇

21) 페어클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 또한, 권력을 가진 존재가 관련 담론 다가서는 사람들에 따라 권력을 주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한다며 그 책임을 물어 생각해 볼 것을 권장했다. 미셸 푸코를 인용하여 “교육제도가 어떤 것이든, 담화[담론]가 담고 있는 지식 및 권력과 더불어, 담화[담론]의 전용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정치방식”임을 말하였다. 푸코는 텍스트 자체나 저자의 창조성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명적 구조와 담론 일반”을 형성하는 법칙을 들여다보려 했다(페어클로, 2001).

인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정책 자료와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에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텍스트 분석도 텍스트에 관하여 언급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해 주지 못한다고 가정”하며 “선택적”이고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페어클로, 2003: 48). 그렇지만 특정한 텍스트가 선택되어 우리의 눈과 귀 앞에 와 전달되기까지는 어떤 권력과 효력의 작용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기준>을 검토하고 추적해보는 과정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3.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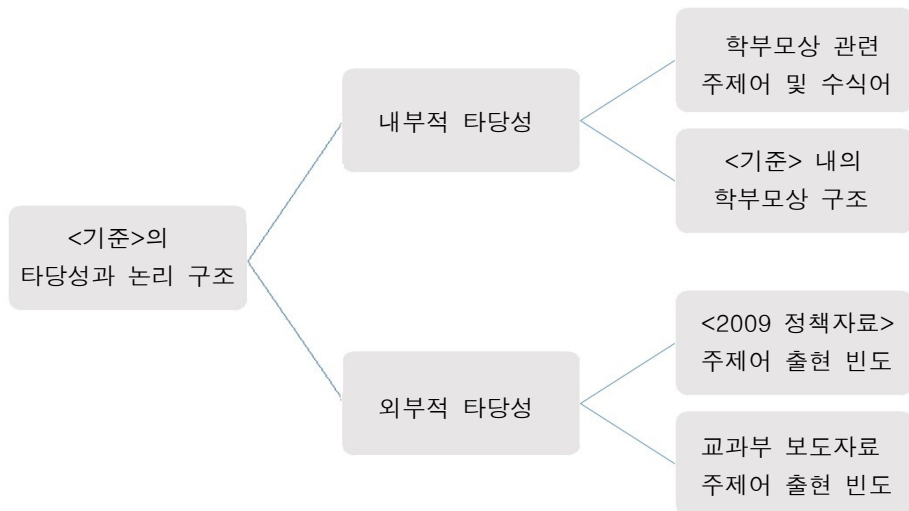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부모교육과정 기준에서 내세운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내·외부적 구조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학부모 정책의 전개 과정을 짚어보고, <기준>과 관련된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과 해당 정부 기간 동안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의 구조와 논리를 탐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모 정책의 전개과정 전반에 대해 알기 위해 학부모 정책 자료와 관련 문헌들을 탐색했다. 전개과정은 앞선 <표 III-1>의 1차 분석 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기별로 정리하되, 전환점이나 변화의 경계가 되는 사건들을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빈도가 높은 단어나 어구뿐만이 아니라, 텍스트와 맥락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도 주목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 교육을 주관하는 정부와 기관에서 학부모를 어떻게 가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결과로써의 학부모 교육과정

을 있게 한 앞선 과정, 학부모를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변화의 진행, 이에 따른 학부모 지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판단되었는지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준>의 내·외부적 타당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7개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다시 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정부가 서술하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현재 모습과 지향점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준>과 <기준> 연구 개발 보고서, 그리고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2008.02-2013.02)를 대상으로 하여 그 논리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내용 분석은 해당 정책 문서와 문헌 자료들의 텍스트에 한정지어 이루어졌다.

<기준>의 내·외부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구조는 아래의 <그림 III-4>과 같다.



<그림 III-3> <기준>의 내·외부적 타당성 분석 구조

내부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우선, <기준> 내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를 분석하고 분석 단위를 규정하였다. 분석 대상 문서들에서 바람직한 학부모상과 관련한 용어와 개념들을 확인함으로써 각 상들의 의미를 볼 수 있는 텍스트들의 구성 요소를 뽑아낼 수 있었다. 모든 내용 분석의 범주 체계는 7가지 바람직한 학부모상으로 두었다. 범주들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분석의 목적과 흐름에 따라 일부 범주를 통합하여 함께 분석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음으로, <기준> 연구 개발 보고서와 <기준>을 대상으로, 7가지 학부모상이 어떻게 담겨있고, 학부모상들 간의 불균형은 없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단위 선정에는 앞선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분석 결과가 활용되었다. 각 분석 대상 문서의 특징이나 서술 방식에 따라, 통사론적인 단위와 의미론적인 단위²²⁾ 모두를 고려하였다.

외부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자료는 <2009 학부모정책 추진 방향>과 학부모 정책이 활성화 된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한정되었다. ‘기대하는 학부모상’ 범주 체계에 따라 각 문서들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를 분석하고 그 논리 구조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7가지 학부모상이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정책 문서에 반영된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차등적인 생산 구조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학부모에게 붙여진 언어와 그들을 바라보는 특정 시선도 일부 드러났다.

<기준>의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보기 위한 공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해당 문서들의 내부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7가지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범주로 두어 전체적인 텍스트의 서술 방향을 확인하였다. 이후 분석 단위를 설정하여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자료들의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설명하고, 해석을 덧붙였다.

22) 고전적으로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는 통사론적 또는 의미론적으로 규정하였다. “기호(단어), 문장, 완전한 텍스트, 영역 시간”은 통사론적으로 규정하는 단위에 해당한다. “인물, 진술, 의미 단위”는 의미론적으로 규정된 단위에 해당한다(스테판 티스처, 2000: 96).

IV. <기준>의 타당성 검토

본 장에서는 <기준>의 내·외부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7가지 바람직한 학부모상²³⁾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분석한다. 연관된 용어와 개념, 해당 내용이 진술되고 있는 모습을 분석 대상이 되는 문서들을 기반으로 하여 찾아보려 한다.

<기준> 및 정책자료,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준>에서 제시한 7가지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었다. 1, 2상은 도덕적 선언으로써 학부모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와 도리를 명시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3, 4, 7상은 학부모가 도달해야 할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5, 6상이 학부모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목표로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내부적 타당성

이하에서는 7가지 바람직한 학부모상을 중점으로 <기준>에 담긴 내용과 그 논리 구조를 파악해보려 한다. 7가지 학부모상을 있게 한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보고서 및 <기준>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의 내부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3) 편의상, 7가지 ‘기대하는 학부모상’을 ‘7가지 학부모상’, ‘바람직한 학부모상’으로 문맥에 따라 병행하여 표기한다. 또 7가지의 학부모상 각각을 ‘1상’, ‘2상’, … ‘7상’으로 표기한다. (1 심신이 건강한, 2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3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4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5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6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7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

가. <기준> 내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기준>의 전문 속에서 7가지 ‘기대하는 학부모상’과 관련된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7가지 바람직한 학부모상과 관련된 용어 및 개념이 각각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기준>의 전문에 나타난, 각각의 학부모상과 관련된 주제어 및 수식어를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1>과 같다. 아래의 분류 결과는 이후 <기준>의 내·외부적 구조 분석과정에서 분석의 단위로 활용한다.

<표 IV-1> ‘기대하는 학부모상’ 분류를 위한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기대하는 학부모상	주제어 및 개념	수식어 및 연관내용	관련 주제
(1상) 심신이 건강한	심신의 건강	건강한 가정, 병리의 치유,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심신 치유
(2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정서적 안정	부모됨	
(3상)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평생학습	교육정보 제공,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식/태도/문제해결능력 습득 및 신장, 학습, 교육, 평생학습자, 배움의 기회	교육 계몽
(4상)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자녀 양육 책임	자녀 양육, 부모로서 역할 수행, 자녀 교육 책임, 보호책임, 인격체로 대우	양육 책임
(5상)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자녀 인생 행복	자아실현, 행복한 삶, 전인발달과 행복	자녀 존중
(6상)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이기주의 타파	자녀의 친우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우리 아이들, 협력, 공동선, (친구와의) 상호작용	공동체 배려
(7상)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공교육 참여	국가와 학교와 사회,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참여 협력, 협조 및 지원, 기여 (정책) 모니터링	공교육 협조

기대하는 학부모상의 첫 번째인, 심신이 건강한 학부모는 학부모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된 <기준>의 진술로는 ‘건강한 가정,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병리의 치유’ 등이 있었다. 두 번째 학부모상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학부모는 학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연관된 본문 내용으로는 ‘부모됨’ 정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기준> 연구 개발 보고서는 “부모됨의 이해”가 학부모 교육과정에서 선행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잡힌 부모관이 학부모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홍후조 외, 2012: 187). <기준>의 맥락상 첫 번째와 두 번째 학부모상 모두 심신 치유, 정서적 안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두 개의 학부모상을 굳이 별도로 분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덕망 있는 학부모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 도덕적인 제언의 측면이 아니었을까 예상한다.

세 번째 학부모상인,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된 평생교육 활성화의 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자녀교육정보,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식과 태도와 능력의 습득’ 등,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배움의 자세를 강조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계몽을 주장하였다.

네 번째 학부모상인,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교육 그리고 보호의 책임, 부모로서 역할 수행’ 등을 들어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로서 기본적인 자녀 양육 책임을 지웠다. 학부모는 자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관계를 맺고 있는 평생의 교사이다. 가정의 약화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자녀를 위탁하고 교육기관에 학부모의 권한을 위임하여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당교사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학부모 스스로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내로써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 학부모상인,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학부모는 말 그대로 자녀의 ‘자아실현과 전인발달, 행복’을 빌어주며 자녀를 존중하는 학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성적과 입시 위주의 자녀 교육에 치중하는 일부 사회 풍조 및 소수 학부모들의 세태를 경계하는 관점이 담겨 있다.

여섯 번째의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학부모상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사회적 대인 관계, 친구와의 상호작용, 협력과 공동선’ 등의 수식어들을 찾을 수 있었다. 내 아이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자녀양육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배려하여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상과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국가와 학교와 사회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력하고 지원’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부모회 같은 단위학교를 통한 방법이나 정책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고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수요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 고객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교직원, 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3주체 중 하나로 학부모를 교육의 이해당사자로 보는 관점은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과도 일맥상통한다.

나. <기준> 내의 학부모상 구조

<기준>의 전문에는 7가지의 기대하는 학부모상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 <기준>의 성격과 목표,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을 말하는 데에 있어 7가지의 상이 골고루 언급되어 있는 것일까? 7가지 학부모상들 사이의 불균형은 없을까? 만약 학부모상들 사이에 편중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기준>의 전문을 7가지 학부모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2>이다. 이를 통해 7가지 학부모상의 불균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문의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옮김으로써, 각 학부모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직접적인 텍스트로 드러나지 않고 문맥상의 의미를 가진 부분이나 명확한 학부모상의 구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앞선 <표 IV-1>을 분류 기준 및 분석 단위로 삼아, <기준>의 내부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1, 2, 5, 6의 학부모상에 비해 3, 4, 7의 학부모상이 <기준> 전문에 고루 많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준>이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학부모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왜 특정 학부모상에 대한 언급이 더 많고 적은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보려 한다.

<표 IV-2>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기준>의 내부적 구조

	(1상) 심신이 건강한	(2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3상)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4상)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성격			-(학부모 교육과정은) 학부모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정보 제공하여 , =(학부모 교육과정은) 학부모의 자아실현과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녀교육 역량 을 강화하고,	-(학부모는) 자녀 양육 을 바르게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학부모 교육과정은) 학부모의 자아실현과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목표	=학부모는 자녀 양육 및 건강한 가정을 구축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여, =(첫째, 부모됨의 의미를 알고)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정립 을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첫째, 부모됨 의 의미를 알고, 자녀 성장에 따른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이해하며,	=학부모는 자녀 양육 및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문제해결능력을 습득 하여, -둘째, 자녀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지식, 정서, 건강과 사회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셋째,)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지식, 태도 및 실천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자녀를 미래의 전인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 제도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정책을 이해 하고, 이러한 정책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학부모는 자녀 양육 및 건강한 가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여, =(첫째,)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정립을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 을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교육받을 권리 -교육정보를 알 권리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학습을 수행할 책임	=자녀의 전인발달과 행복에 기여하는 양육 책임 -유기, 방임, 학대 등으로 부터의 자녀를 지킬 보호 책임
교육과정 구성 방향	-학부모 교육과정은 현 단계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적 병리 를 치유 하고, 더 나은 교육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셋째, 학부모는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평생학습 자로서 배움의 기회 를 가져야 한다. 평생학습 하는 학부모는 자녀의 역할 모범이 되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 교육공동체에 건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부모는 자녀를 내 소유, 내 희망을 대리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 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를 유기, 방임, 학대할 권리가 없으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 하고 올바르게 교육 할 책임이 있다.

	(5상) 자녀의 대인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6상)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7상)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성격			-(학부모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부모 교육과정은) 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학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적성과 진로 발견을 돕고, 개인적·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자녀가 학교와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개인적·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셋째, 자녀의 친우관계를 포함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 교육과정은) 학부모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돕고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교사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협조 및 지원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자녀를 미래의 전인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 제도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자녀의 전인발달과 행복에 기여하는 양육 책임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할 권리 -교육활동에의 참여와 기여할 책임
교육과정 구성 방향		-둘째, 학부모는 내 아이를 향한 교육열을 우리 아이들을 향한 교육적 열정으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루는 존재로 양육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학부모는 개인과 집단으로 자녀와 그 친구들이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따금 빛어낼 수 있는 청소년의 병리적 현상과 행동들을 예방, 진단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평생학습하는 학부모는,) 학교교육과 교육공동체에 건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는 교육 제도나 정책이 건전하게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요청 할 수 있어야 한다.

* ‘=’는 중복처리 된 문장 및 어구를 표시한 것임.

단순한 글자의 양과 문장의 길이로 7가지 학부모상의 불균형을 확인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의미가 통하는 어절이나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기준>의 전문을 다시 분석해보았다. <표 IV-2>의 내용을 수치화한 결과는 <표 IV-3>와 같다. 7가지 학부모상과 전혀 무관한 내용은 분류대상으로 삼지 않았기에, <기준>의 권고적 성격, 활용 방법 등을 언급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이 역시 앞선 <표 IV-1>의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를 참조하여 출현 빈도를 분석해 보았다.

성격 부분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기본 단위로 삼았다. 하지만 한 문장 안에서 하나의 주어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서술어가 나열된 문장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서술어의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문장을 나누고, 별도의 의미 단위로 보았다. 목표 부분 역시 같은 문장 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경우에는 의미 단위를 달리 하였다.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부분은 본문에 간결하게 제시된 4개의 권리와 4개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보아 분류하였다.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부분에서는 본문에 제시된 5가지 방향 각각이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문장이나 서술어를 기준으로 하는 나눔 없이 각각의 구성방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았다.

<표 IV-3>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등장하는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

	1상	2상	3상	4상	5상	6상	7상
성격	-	-	2	2	-	-	2
목표	2	1	4	2	1	2(3)	3(4)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	-	3	2	1	-	3
교육 과정 구성 방향	1	-	2(3)	2	-	3(4)	2
	3	1	11(3)	8	2	5(7)	10(4)

* ()는 한 문장 또는 하나의 의미 단위 안에서 사용된 관련 단어 및 어구를 표시한 것임.

1) 학부모의 심신 치유 강조

심신이 건강한 학부모상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학부모상은, 7가지 바람직한 학부모상 중 우선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순서가 강조된 것에 비해 <기준>의 전문에 드러나는 내용은 부실하다. 1, 2상에 관한 서술은 <기준>의 목표와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부분에서 겨우 4개 정도 찾아볼 수 있었다.

<기준>의 목표 중 첫 번째는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정립을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을 실천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이다. <기준>의 연구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21개 소영역²⁴⁾ 중 학부모가 가장 듣고 싶은 강좌를 5개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자녀의 발달 정도 및 일반 학부모와 교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를 막론하고 부모·가정(대영역)의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행복증진법’이었다”(홍후조 외, 2013: 178).²⁵⁾ 학부모가 원하고 교사와 정책담당자까지 중요하게 여기며, 첫 번째 목표로 삼은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정’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의 연설에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며, 가족이 건강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 2012: 107). 불안한 사회와 불안한 교육현장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의 힘과 가족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24) 2011-20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육과정 기준연구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한 21개 영역에 따라 분류했다고 한다. 대영역은 학부모, 학생, 학교의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학부모 영역 아래에는 부모의 역량강화와 가정의 교육력 강화가 있다. 학생 영역 아래에는 자녀 개인의 기본 특성 이해, 자녀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녀와의 경험 공유, 청소년 문제 대처가 있다. 학교 영역 아래에는 학교의 교육활동 이해, 교사와의 협력,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 이해가 있다(홍후조 외, 2013: 179-180).

25) “건강한 부부관계 및 가정의 교육적 역할 증진법,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형성과 행복 증진법”이라는 프로그램 주제를 포함한 상위 영역은 가정의 교육력 강화이며, 이는 학부모 대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학부모의 역량에 따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정의 교육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가정은 우리 삶의 출발점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가족의 유대와 정은 우리의 전통이자 정신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가족 간 유대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혼인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로 변화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유영주(1995)의 가정학 원론에 따르면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정을 의미하며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다져가는 가정으로 가족원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가족원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체계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다. 건강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한 전세경 외(2014: 21)는 건강한 가족이 “강한(strong) 가족, 건강한(healthy) 가족, 최적의(optimal) 가족, 균형 있는(functional) 가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어 건전한 상태라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가정이 건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기능은 어떤 것일까. 예로부터 가정은 휴식 및 정서적 안정, 경제적, 애정 및 자녀 출산, 자녀 양육 및 보호, 자녀 사회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져왔다. 현대 가정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이 축소되고 가정 외부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속에서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의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과 긍정적으로 적극 상호 소통하며 상호존중과 행복을 추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기며, 서로 함께하는 가까운 분위기에서 갈등과 변화를 맞이하며 성장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Olson & Defrain, 전세경 외 2014: 23에서 재인용). 가정 외부기관과 관계망들이 가정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음에도, 가정 고유의 연대와 소속감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의 기능을 쉽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족력 약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은 학부모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부모·가정의 학부모(대영역) 아래에 가

정의 교육력 강화(중영역)를 배치하고 아래와 같은 소영역과 선정배경을 서술하였다(홍후조 외, 2012: 131). 학부모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의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는 듯하다.

- 건강한 부부 관계 및 가정의 교육적 역할 증진(소영역): 부모로서의 준비와 성장, 부모와 자녀간 상호 이해 및 소통
-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행복 증진(소영역):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자기 경영과 성장, 가정-학교-사회의 교육적 협력

학부모의 몸과 마음의 안정된 상태 및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1, 2상은 학부모 개인과 자녀, 가정의 건강을 강조하기 위한 도덕적 제언의 성격이 강하다. 도덕적 측면의 목표로 삼기에 적절한, 부모됨의 역할을 상기시키기 위한 학부모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을 지닌 두 개의 학부모상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달리 제시한 것이다.

2) 학부모의 학습 상황 형성

앞선 <표 IV-2>와 <표 IV-3>을 보면 상대적으로 3, 4, 7상이 다른 상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글자 수와 출현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 또 이와 같은 <기준> 내부의 불균형 구조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3상과 관련하여 자녀교육 역량을 키우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의 연구 개발 보고서는 “현재의 부모 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해 경험이나 상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홍후조 외, 2012: 26)며 학부모 교육 내용의 좁은 범위를 지적했다.

그렇기에 <기준>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학부모 교육의 범위를 학부모 개인과 자녀, 학교와 공교육제도로 확대하여 보고자 했을 것이다. 분석 자료들로 미루어 보아, 국가에서 제시하는 학부모 교육은, 자녀의 성장과 교육,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의 연구 개발 보고서에서는 부모교육 이론과 우리나라 및 서양의 부모교육 역사를 근거로 내세우며,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건강한 학부모와 가정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5개국의 학부모 교육 특징을 간추려 놓았다(홍후조 외, 2013: 174). 우리나라보다 가정교육과 부모 교육을 먼저 체계적으로 이루어 온 5개국에서의 부모교육 특징을 참조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정에서의 교육을 말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기준>에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 정립의 중요성이 반영되는 데에 더 힘을 실어 주었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가정의 중심에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있기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더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준>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가정과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더불어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²⁶⁾를 바란직한 학부모상 중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평생학습하는 학부모는 자녀의 역할 모범이 되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 교육공동체에 건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준>에서 내세우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무엇일까. <기

26) 이명박 정부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부 초기의 100대 주요 국정과제 전반에는 학부모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해당 과제는 지역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및 운영을 하위 항목으로 가진다(국무총리실, 2008). 학부모나 노년층과 연관된 평생학습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해 평생교육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눈 여겨 볼만하다. 또 이와 같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계획이, <기준>에서 바란직한 학부모를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로 제시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준>에서 제시하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학부모(부모의 역량 강화, 가정의 교육력 강화)
- 학생(특성 이해, 생활습관 형성, 경험 공유, 청소년 문제 대처)
- 학교(학교 교육활동 이해, 교사와 협력, 교육참여, 정책 이해)

<기준>의 내용 체계에서도 자녀·자녀친구(대영역)-생활습관 형성(중영역)-학습습관 형성(소영역)의 선정배경으로 “자기주도학습과 협동학습의 평생학습자로서 학습습관 형성”(홍후조 외, 2012: 131)이 언급되었다. 학부모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는 <기준> 뿐만이 아닌 실제 학부모 교육 자료에서도 등장한다.²⁷⁾

<기준> 연구 개발 보고서의 제언 부분에서는 학부모의 배움을 인간의 배움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하였다(홍후조 외, 2012: 180).

인간의 배움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며, 이러한 배움은 앎과 능력을 체득하는 것으로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임. ... 학부모 교육과정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은 물론, 변화하는 사회에서 수용해야 할 다양한 핵심 또는 주변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그 주요 요소로 다루어야 할 것임. 즉, 학부모는 그 자녀들이 지·덕·체가 조화롭고 균형있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늘 새로운 교육적 관점에 다양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임.

27)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에 ‘행복한 자녀교육! 좋은 학부모는 먼저 공부합니다.’라며 자녀교육 길라잡이와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코칭’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한 바 있다.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며, 후에 교육이수증과 평생학습계좌제와도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는 학부모의 자기주도적 학습코칭을 위한 방법과 사례를 담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기본 지식, 부모의 역할과 도움, 필수학습법 코칭, 연령 및 학교급별 코칭 방법이 제시되어있다. 공부하는 학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 양육과 교육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의 학부모상 중 하나로 ‘평생학습을 통해 지혜로운 학부모’가 제시된 것에 비하여, <기준>과 보고서 전반의 내용에서는 학부모의 평생학습 범위와 개념을 자녀교육에 한정하여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준>의 총론 부분에서 제시된 학부모의 평생학습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요소 대부분이 자녀 성장과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

3) 학부모의 책임 실천

다음으로, 4상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준>에서는 학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언급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올바른 보호의 태도를 가져야 함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녀의 권리 보장과 행복 추구하고 관련된 언급은 자녀를 학부모의 대리만족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경계하고 학부모들에게 바른 양육태도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다.

<기준>에서는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이루려는, 학부모의 보상심리를 경계한다. 이승욱 외(2012: 137)는 이러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채무 관계에 빚대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자녀들도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한 부모의 은혜에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기에 무언가 빚지고 있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투자 원금을 갚고 거기에 이자까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부모의 기대를 이루어줘야 하고 부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살아간다. ...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든 이런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부채감과 채무를 갚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에 잠식될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게 된 상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의 존재를 성립하게 하는 것이 학생인 자녀인 것은 개념적으로 맞다. 학부모와 자녀가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학부모라는 독립적인 존재를 자녀와 잠시 떨어뜨려, 개별 특성과 생활을 가진 온전한 개인으로 보자. 학부모 교육의 범위를 지나치게 자녀교육, 부모로서의 역할교육이라는 일부에만 치중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기준> 연구 개발 보고서에서는 자녀와는 독립적인 학부모의 자아실현에 대해 아래 <표 IV-4>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표 IV-4> 학부모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학부모 정책 내용

학부모의 자아실현 관련 내용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 및 <기준> (2012.12.)	(II. 이론적 배경 - 다. 부모 교육에 관한 이론) -상호교류 분석이론을 통한 부모 교육의 목적 : 부모들에게 자기부정의 생활 자세나 태도를 자기긍정적 자세로 변화시켜 올바른 부모 노릇하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임.
	(IV.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 1. 성격) -학부모 교육과정은 학부모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자아실현 과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가정중심 부모 교육: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부모 교육의 핵심을 부모에 두고 있음. -가정중심 부모 교육의 중점 내용: 자기이해를 통한 자아개념 확립, ...

<기준>에서 밝히는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인 3개 대영역, 10개 중영역, 21개 소영역 중에서도 학부모의 자아실현, 학부모의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부모의 역량강화와 가정의

교육력 강화를 담은 학부모(대영역)에서도 세부 성취기준의 내용들은 모두 부모로서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부모 교육과정 및 <기준>과 연관된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학부모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내용을 일절 찾아보기 어려웠다. 직접적인 학부모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2010년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나 <2013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잡이>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오로지 자녀교육과 학교 참여와 관련한 내용들만 찾아 볼 수 있었다.

학부모는 누군가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기에 앞서 그저 평범한 한 개인이다. <기준> 연구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원 및 학부모 대상의 설문 결과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 및 상식 함양(부모의 자기개발) 문항에 대한 호응도는 78.1%였다. 반수를 훌쩍 넘는 수치로, 간과할만한 낮은 정도가 아니다. 이는 학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에 대해 분명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²⁸⁾ 하나의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역량과 평생학습의 범위를 더 넓혀 생각해 본다면 학부모 교육의 개념과 범주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4) 학부모의 공교육에의 기여

마지막으로, 7상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협력 하고 기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준>의 전문을 읽어보면, 가정과 학교, 사회라는 3요소의 협력체계가 거듭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에게 교육정책과 활동에 참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일부 권한을 주는 대신,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과 학교, 사회

28) <기준>의 영역 구성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이루어진 해당 설문은 홍후조 외 (2013: 189)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양 및 상식 함양’에 대한 78.1%의 수치를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낮은 편”이라고 서술하며, 이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영역의 비중을 축소시켜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학교나 교사, 교육정책과 관련된 영역에서 68.8~76.6% 호응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의 동반 관계 구축과 소통 필요성에 관한 언급은 <기준> 연구 개발 과정 초기부터 <기준>의 성격 부분까지 계속 된다.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를 위해 <기준>에서 준비한 학부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아래 <표Ⅳ-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홍후조 외, 2012: 131).

<표 Ⅳ-5>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를 위한 <기준>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선정 배경
부모·가정 (학부모)	가정의 교육력 강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행복 증진	- 가정-학교-사회의 교육적 협력
학교·교사 (학교)	교육 참여	교육 참여와 재능 기부	-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
	정책이해	교육제도 및 교과부·교육청의 교육 정책 이해	- 각종 교육 제도, 정책, 중 점 이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및 학교 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하며 지원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기준>의 연구 개발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 체계와 해당 연구의 기대효과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홍후조 외, 2012: 16).

- 학부모: 교과부, 교육청, 학교 등의 공식적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을 것임.
- 교과부와 교육청: 교과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공감 및 협력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학교: 학교의 주요 교육방침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공감 및 협력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기준>에서는 ‘학부모와 학교는 학교교육을 두고 계약관계를 맺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교육에 잘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미래 인재를 교육해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향후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에게 계약(강제)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후조 외, 2012: 7).

학부모 정책의 방향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공교육에의 참여였다. 시대적으로, 낯이 심화되는 사교육 의존도와 공교육의 흔들림, 학교 붕괴 현상 속에서 공교육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렇기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통계적 수치를 활용하여 증명하고자 했을 것이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상 세 가지는 <기준>의 내용 대부분을 과하게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기준>에서 말하는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은 모두 이 세 가지 상들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상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상들은 학부모들에게 실천적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학부모는 자녀 교육 정보를 익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배움을 평생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며 키워내는 학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도 가진다. 공교육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써 협조하고 참여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3, 4, 7상은 학부모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학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 및 교육의 방향성을 권고적으로 제시해주는 <기준>에서 실천적 요소를 지닌 이 세 가지 학부모상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외부적 타당성

앞서 <기준>의 내부적 타당성을 보기 위해 <기준>의 전문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기준>을 둘러싼 학부모 정책 자료를 대상으로, <기준>의 외부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검토 한다. 본 장에서는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과 학부모 정책이 활성화 된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앞선 내부적 타당성 검증 방법과 동일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텍스트들을 통해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서도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편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속의 학부모상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2008-2012년 기준)에서 온전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위해 만든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 자료는 2009년 8월 12일의 보도 자료와 함께 시안의 형태로 등장했고, 같은 해 11월 9일의 보도 자료에서 정식 안의 형태로 공개 되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선진화’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부모 관련 정책 문서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다른 자료들은 학부모 정책의 연장선상이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부모만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생성하고 시행한 정책 문서가 아니었다.²⁹⁾ 그렇기에 <기준>의 외부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온전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정책 문서인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

2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9년 12월에 발표한 <학부모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연구(수탁연구)>는 학부모 지원 정책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과 거의 유사한 흐름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향>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추진배경 및 경과, 2장은 현황 및 문제점, 3장은 비전 및 정책목표, 4장은 중점추진과제 세 가지, 5장은 기대효과, 6장은 향후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경과와 학부모 활동의 연혁, 기대효과, 향후일정은 학부모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래는 해당 문서에서 바람직한 학부모상과 연관된 내용을 선별한 결과이다.

- I. 추진배경 및 경과 - 1. 추진배경
- II. 현황 및 문제점 - 2. 학부모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 III. 비전 및 정책목표
- IV. 중점추진과제 - 1.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2.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3.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이하에서는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중, 위의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해당 문서 내부 논리구조와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7가지 학부모상이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³⁰⁾ 정책 문서에 반영된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차등적인 생산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붙여진 언어와 그들을 바라보는 특정 시선을 찾아본다.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내부적 구조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V-6>과 같다. 해당 문서의 텍스트 중 학부모상과 관련된 일부분만을 그대로 옮겨두었다. 각각의 학부모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나 문구는 굵은 글씨로 처리하였다.

30) 2009년의 학부모 정책이 발표된 이후, 2012년에 <기준>과 ‘기대하는 학부모상’이 등장하게 된다. <기준>과 바람직한 학부모상이 선행된 이후에, 7가지 학부모상이 정책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는 것이 순차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적 흐름과 관계없이 두 대상을 함께 분석해본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학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하다고 만들어진 ‘학부모상’을 함께 분석해 본 결과를 본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V-6>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내부적 구조

	(1상) 심신이 건강한	(2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3상)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4상)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I-1. 추진 배경				<input type="checkbox"/>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정립 필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 필요
II-2. 현황 및 문제점	1			
	2		<input type="checkbox"/>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 기회 부족 -학부모의 자녀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으나, 실제로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 -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지원도 미미한 수준 <input type="checkbox"/> 변화된 학교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정보 부족	
	3			
III. 비전 및 정책 목표			<input type="checkbox"/> [정책목표]학부모의 역량강화 로 가정교육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중점추진과제]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 학부모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 -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중점추진과제]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IV. 중점추진과제	1			
	2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 - 자녀교육 역량강화 <input type="checkbox"/>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활성화 - 맞춤식 학부모교육 제공 - 사이버 학부모교육 운영 - 학부모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에서 학부모교육 비중 강화 - 학부모교육 콘텐츠 를 평생교육기관에 보급 -EBS를 활용한 학부모 대상 원격 서비스 확대	
	3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5상) 자녀의 대인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6상)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7상)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I-1. 추진 배경			<input type="checkbox"/> 학부모가 교육부문의 프로슈머(Prosumer)로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주체로 참여 필요 ---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개선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 욕구 증대 -학교교육, 교육정책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교육고객으로 참여 하여 공교육 만족도 제고 및 사교육 의존 경감 필요
II-2. 현황 및 문제점	1		<input type="checkbox"/> 학부모회 등을 통한 학부모 활동 저조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의 여건에 맞는 학교참여 기회 제공 부족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교참여 를 위한 교육 지원 미흡
	3		
III. 비전 및 정책 목표			<input type="checkbox"/> [정책목표] 학부모의 참여 확대 로 학교교육 질 제고 <input type="checkbox"/> [중점추진과제]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 학부모회 활성화 - 학교교육 참여 제고 - 교육정책 참여 확대
IV. 중점추진과제	1		<input type="checkbox"/>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회 구성 및 참여 제고 -학부모회 역할 정립 (건전한 학교참여 활동 주도 ...)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참여 제고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학교교육에 활용 (학부모가 참여 하여 학교교육 지원,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발굴·보급...)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 참여 -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정책 참여 확대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 구성·운영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확대
	2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 교육
	3		

* ‘=’는 중복처리 된 문장 및 어구를 표시한 것임.

<표 IV-7>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분석을 위한 단위 항목

		단위 항목	
I-1. 추진배경		<input type="checkbox"/>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정립 필요 <input type="checkbox"/> 학부모가 교육부문의 프로슈머(Prosumer)로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주체로 참여 필요 <input type="checkbox"/>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부모정책 추진 필요	
II-2. 현황 및 문제점	1	학부모의 교육참여 여건 미흡	<input type="checkbox"/> 학부모회 등을 통한 학부모 활동 저조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의 여건에 맞는 학교참여 기회 제공 부족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학부모 역량제고 기회 부족	<input type="checkbox"/>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 기회 부족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한 교육 지원 미흡 <input type="checkbox"/> 변화된 학교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정보 부족
	3	학부모 지원 체계 미비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를 위한 지원 조직 및 체계적인 정책 부재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활동의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의 사적 기대를 공적 관심으로 전환하는 기반 취약
III. 비전 및 정책목표		<정책 목표>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제고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의 참여 확대로 학교교육 질 제고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정교육 내실화	<중점추진과제>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IV. 중점추진과제	1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학부모회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참여 제고 <input type="checkbox"/> 교육정책 참여 확대
	2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3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input type="checkbox"/>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학교방문 및 상담기회 확대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표 IV-6>의 내용을 수치화시켜 비교해보기 위해 위의 <표 IV-7>와 같은 단위 항목을 구성하였다. ‘추진배경’에는 3가지 항목이 있었으며, 학부모상과 관련된 항목은 2가지였다. ‘학부모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에는 3가지 문제점 아래 각각 3가지 하위 항목들이 있었다. ‘비전 및 정책목표’에서는 3가지 정책목표와 3가지 중점추진과제를 대상항목으로 삼았다. ‘중점추진과제’에는 3가지 과제 아래에 각각 3개씩의 세부과제가 제시되었다.

<표 IV-7>을 바탕으로 하여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8>와 같다.

<표 IV-8>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

	1상	2상	3상	4상	5상	6상	7상
I-1. 추진배경				1			1
II-2. 현황 및 문제점	1						3
	2		2				1
	3						
III. 비전 및 정책목표			3				2
IV. 중점추진과제	1						3
	2		3				(1)
	3		1				
	0	0	9	1	0	0	10(1)

* ()는 해당 정책의 세부 하위 내용에 관련 내용이 일부라도 언급된 경우를 추가로 표시한 것임.

학부모를 교육 참여로 이끄는 학부모 교육의 개념과 함께, 위의 <표 IV-8>을 다시 살펴보자. 총 20개의 단위 기준들 중에서 10개가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7상에, 9개가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3상, 1개가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4상에 해당한다. 이는 <기준> 내에서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 출현 빈도와 유사한 결과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행동방침이다. 그렇기에 정책에는 국가의 미래의 모습이나 지향하는 바가 반영되어 있다.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학부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학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임과 더불어 교육 참여의 책임을 지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라는 고객에게 자녀와 관련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깨우침을 주고, 이를 통해 공교육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또 해당 교육과정과 공교육에의 협조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회유 방법과도 연관된다.

1) 교육 계몽과 공교육 협조의 강조

2009년 5월, 학부모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 아래 ‘학부모정책팀’이 생겨났다.³¹⁾ 학생·학부모지원과에 학부모정책팀을 구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선진화 실

31) 이와 같은 교육수요자를 위한 학부모정책팀 설치와 정책 시행의 배경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한 교육혁신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2007년에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방안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수요자 중심 교육이 한국의 교육문화로 폭넓게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추진배경을 가지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해주었다. 학부모가 교사, 학생과 더불어 교육 개혁의 동반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기존의 독재적인 통치방식과 국가통제교육을 받아온 학부모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 목표를 추구하고 학부모 참여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요자 위주의 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요시되는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장, 소통, 실천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학부모를 교육수요자로 보는 관점은 같은 해 발표한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에서도 드러난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활성화, 학교교육 참여 제고, 교육정책 참여 확대”(교육과학기술부, 2009: 8)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해당 정책의 추진배경으로는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인식 제고’와 ‘학부모 교육 참여 욕구 증대’를 들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³²⁾ 학부모를 또 다른 교육주체로서 인식하고, 학교를 통해 (공)교육에 참여하려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인식 제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실제 학교교육, 교육정책 등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역할 제고 필요

- (학부모 교육참여 욕구 증대) 최근 학교선택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개선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 욕구가 증대 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 교육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 경감 필요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은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며 첫 장을 열었다. 그리고 문서 전반에서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라는 7번째 바람직한 학부모상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담아냈다. 학부모가 교육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주체이자, 수요자

3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11.09.)에 발표된 <2009 학부모정책 추진 방향>의 추진 배경.

의 위치에 서 있는 교육고객임을 전제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낮은 이유를, 학교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 참여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기 위한 정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역량 제고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³³⁾ 이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라는 3번째 학부모상과 연관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교육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학부모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시안 형태에서는 학부모 교육 강화라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학부모 정책의 세부과제는 학부모회 활성화, 학교교육 참여 제고, 교육정책 참여 확대이다. 이 과제들은 모두 학부모를 학교 참여, 교육 참여, 공교육 참여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다.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은 학부모를 교육주체 중 하나로서 정책을 감독하는 위치에 두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국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두기도 한다. 해당 문서에는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정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부모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중점추진과제가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학부모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찾아가고 각 학부모의 여건에 맞추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학부모교육은, 결국 그들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 역량을 강화시켜 학부모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계획되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에는 자녀교육, 학교선택, 교육참여, 교육정책 등이 있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국가 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길

33)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서는 학부모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학부모의 교육참여 여건 미흡과 함께 학부모 역량제고 기회가 부족함을 들고 있다. “학교회계, 교육과정 등 학교참여 전문성 교육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학부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6). 해당 정책 문서의 시안에서는 “학교 운영 관련 지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러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으로써의 성격을 띤다. 학부모정책 시안에 등장했다가 본안에서는 제외된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참고자료에는, 정부가 바라보는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수요자, 납세자, 유권자³⁴⁾이며 학부모의 역할은 (자녀 양육의) 교사이자 학교활동 참여자이다.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회유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다.³⁵⁾ 선거 공약집에서도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 국민세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가장 먼저 사교육비³⁶⁾와 보육비 등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10대 공약 중 하나로도 ‘공교육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 2008년 해당 정부 출범 시에는 “공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³⁷⁾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원비 등의 사교육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34)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부모정책의 시안에는 학부모의 의미로 수요자, 납세자, 유권자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결과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되기에 수요자,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하기에 납세자,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교육활동에 개입하기에 유권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22).

35) 이명박 정부가 인재대국의 목표를 세워 이루고자 한 것은 교육 선진화이다. 그리고 그 논리에는 공교육부실담론이, 원리에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이 자리 잡고 있다. 김천기(2009)는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정책 지배 담론이, 기존 지배층의 유리함과 연관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확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교육부실담론은 사교육우월담론, 학교유형 다양화는 계층분리교육, 수월성은 소수 학교에의 우수 학생 집중, 학교 자율화는 학교의 입시학원화라는 이면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36)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밖 보충교육비)”으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인터넷 수강 등의 수강료”가 포함된다(통계청, 2008: 1).

37) 이명박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세운 정책들은 10대 공약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예로 고교다양화 300, 영어공교육 완성,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등이 있으며, 이 정책들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표 IV-9>는 학부모 정책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중, 사교육비 경감 및 사교육 축소와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들을 선별한 것이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성은 학부모 정책 개발을 위한 초기 기본계획 연구부터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그리고 <기준>까지 반영되어 있다.

<표 IV-9>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학부모 정책 내용

사교육비 경감 관련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p>(2009.05.13. 교과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 본격 착수)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³⁸⁾: 학교장과 교사의 열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믿음을 바탕으로 ...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충족시켜 ...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3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제고하고자 한다.</p>
	<p>(2009.09.17. 교과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지역으로 직접 찾아간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번 좋은 학부모교실 사업 지원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람직한 학부모상 정립과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하여 심신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을 기대 ...</p>
<학부모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연구(수탁연구)> (2009.11.)	<p>(II. 학부모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이 매우 취약하여 사교육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p> <p>(IV. 학부모 지원 정책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 1. 학부모 교육 지원) -가. 학부모 교육을 통한 학부모 역량강화: 기대효과(학부모의 자녀 학습지도 및 참여로 가정의 사교육비 감소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증진) -다. 학부모 지원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문제점(학부모들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발한 토론이 주로 사교육 위주로 형성됨.)</p>

38) 2009.05.13.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와 함께 공개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

<p><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2009.11.09.)</p>	<p>(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추진배경) -학부모가 교육부문의 프로슈머(Prosumer)로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주체로 참여 필요: 학교교육, 교육정책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교육고객으로 참여하여 공교육 만족도 제고 및 사교육 의존 경감 필요</p> <hr/> <p>(Ⅱ. 현황 및 문제점 - 2 학부모 역량제고 기회 부족) -변화된 학교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정보 부족: 교육정보의 부족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p> <hr/> <p>(Ⅲ. 비전 및 정책목표) -정책목표: 학부모 위상 정립 및 사교육비 경감 *초기 시안 형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p> <hr/> <p>(Ⅳ. 중점추진과제 - 2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2-3.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에서 학부모교육 비중 강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에서 사교육 경감, 자녀 안전 등에 관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p> <hr/> <p>(Ⅴ. 기대효과 - 학부모정책을 통해 변화된 모습) -전: 사교육에 대한 의존 -후: 공교육과 가정교육을 중시</p>
<p>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 및 <기준> (2012.12.)</p>	<p>(Ⅱ. 이론적 배경 - 1. 부모 교육과 학부모 교육의 의의) -부모 교육의 필요성: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학부모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아이들은 학교와 방과후학교, 사교육기관을 전전하며 자라고 있는 편임. 그러므로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p> <hr/> <p>(부록2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한 교육기관) -소분류 기준: 방과후학교 및 사교육 경감, 창의 인성 이해, 교육정책이해 및 학부모 참여, ... -교육프로그램 예시: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학습자료, 사교육경감 영어학습법, 행복교육을 위한 사교육 다이어트, 사교육 없는 학교, 학원 수강료 안정화...</p>

업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이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진다.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부록으로 제시된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학교참여 여론조사 결과에는, 학부모 참여 기여도를 묻는 문항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57.4%(그런 편이다 48.2% + 매우 그렇다 9.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와 같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힘입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육정책 이해 교육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2009년 6월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이 세부 추진 과제³⁹⁾ 중 하나로 제시 되어 있다. 해당 과제에는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가 하위 항목으로 있는데, 그 중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9c: 29). 앞선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자녀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학부모 교육,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사교육 줄이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 협력 체계 구축

-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 추진
- 학부모지원단(30여명)을 통해 의제 도출 및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운영
 - ※ 교과부에 학생학부모지원과/학부모정책팀을 신설('09.5)하여 학부모 지원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교과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학부모 자녀교육 정보 제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녀교육 우수사례 보급
 - (학부모 단체를 통해 ‘사교육 없는 성공적인 자녀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순회강연 추진)

39) 학교교육의 강화를 통해 사교육 보다 나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2009.06.03.)은 총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c: 5).

사교육 경감의 방법을 공교육과 학부모에게서 찾고 해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⁴⁰⁾ 하지만 이와 같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한국 특유의 사교육비 지출 특성을 간과하였으며, 결국은 공교육과 사교육 관계의 모순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도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속의 학부모상

본 연구는 <기준>이 처음으로 생겨난 이명박 정부의 학부모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2008.02.25.-2013.02.24.)시기에 학부모정책을 담당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보도 자료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조하고 싶어 한 학부모정책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다. 분명한 의도와 전달목표를 가진 보도 자료의 텍스트와 흐름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학부모 담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석의 기준이 된 단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IV-10>에는 1차 분석 대상이 된, 학부모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14편이 제시되어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보도 자료들을 하나의 기준 단위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나의 보도 자료에 여러 개 학부모상과 관련한 주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으로 처리하였다.

40) 백우정·최종덕(2011: 21)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대해 “사교육의 원인을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사교육 시장의 투명한 운영 수단 부족으로 보고,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의 지속적 추진, 선진형 입학 전형 정착,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이,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의 경쟁의 악순환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백우정·최종덕, 2011: 9).

<표 IV-10>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분석 대상 목록

	보도 자료 제목	자료 번호
2008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08-1
	학부모서비스 포털사이트	08-2
2009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행정업무 보조인력)	09-1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사업 추진	09-2
	학부모 정책의 청사진 제시	09-3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09-4
	우수 학부모회 지원	09-5
2010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공모	10-1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체제 혁신 방안 마련	10-2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 표창 및 발표회	10-3
2011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통	11-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출범	11-2
	정부 정책 중점연구소 학부모 정책 연구센터 개소	11-3
2013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잡이' 발간,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통	13-1

<표 IV-11>는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의 내용들을 ‘기대하는 학부모모상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이다.⁴¹⁾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공동체 배려 등의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41) 표에서 언급되는 학부모상 숫자는 <기준>에서 제시한 기대하는 학부모상 7개의 순서를 그대로 옮겼다. (1 심신이 건강한, 2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3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4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5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6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7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

<표 IV-11>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의 구조

	연관 내용	관련상	관련 주제
08-1	-전국민 평생학습 활성화	3	교육 계몽
08-2	- 자녀 교육 에 ... 유용한 정보	3	교육 계몽
09-1	-학부모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	7	공교육 협조
09-2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관을 ‘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하고자 ...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 의식 을 함양할 수 ...	6	공동체 배려
09-3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를 통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로 가정교육이 충실하게 할 것이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	3,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09-4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지역으로 직접 찾아간다 - 자녀교육 에 필요한 기본 소양 분야와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 정책 이해 분야 등이 중심이 되고 ... -이번 좋은 학부모교실 사업 지원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람직한 학부모상 정립과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하여 심신이 건강한 자녀 를 양육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에 기여할 것을 기대 ...	1, 3,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심신 치유
09-5	- 학부모 학교참여 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하여 발표 ... - 학부모교육 지원 을 확대하여 자녀교육 역량 을 강화 -... 학교와 학부모가 밀접한 파트너십 형성으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	3,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10-1	-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회 중심의 학교참여 활동 을 ...	3,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10-2	-창의·인성 교육이 중시되는 대학 진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 을 확대할 ... -학부모를 핵심 강사요원으로 양성하여 활용 할 ... -‘09년부터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를 지원하여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건전한 교육관 을 형성할 수 있도록 ...	3, 6,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공동체 배려
10-3	-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를 모든 학교현장으로 활성화하기 ... -공모분야(학교교육참여,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아버지참여)	3,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11-1	-가정의 교육 기능 약화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녀교육 문제 에 올바르게 대처 하기 위한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유용한 교육 정보 를 ... - 자녀교육 정보, 학부모 강좌 , ...	3	교육 계몽
11-2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의 대표적인 역할로는 교육정책과 제 모니터링, 설문조사 참여, 각종 교육 관련 위원회 참여	7	공교육 협조
11-3	-학부모정책연구센터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방안,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가정의 역할 정립,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학부모정책,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관련 분야 를 ... -(교과부장관은) 학부모와 학교가 자녀교육에 대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 ...	1, 3, 4,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심신 치유, 양육 책임
13-1	-학부모 교육자료 를 발간하고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 을 ... -행복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	3, 7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들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 분류를 수치화 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2>와 같다. 앞선 분석에서 7가지 학부모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본 것과 달리, 1상과 2상을 함께 묶어 보았다. <기준> 내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어 및 수식어를 담은 <표 IV-1>과 <기준> 내의 학부모상 구조를 보여주는 <표 IV-2>의 분석 결과에 따라 두 가지 학부모상이 굳이 별도로 고려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 IV-1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들의 학부모(상) 관련 주제 분류

보도 연도	교육 계몽 (3)	공교육 협조 (7)	심신 치유 (1,2)	양육 책임 (4)	자녀 존중 (5)	공동체 배려 (6)
2008	2					
2009	3	4	1			1
2010	3	3				1
2011	2	2	1	1		
2012-13	1	1				
	11	10	2	1	0	2

* 보도 자료별 주제는 복수로 계산함.

평생학습을 통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3번째 학부모상은, 교육을 통한 학부모 계몽의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7번째 학부모상은 공교육에 협조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참여적인 자세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였다. 이 두 가지 상에 대한 언급이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이 생겨난 이명박 정부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개상들에 대한 언급은 직·간접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하에서는 평생학습과 교육과 관련된 3번째 학부모상과,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와 협조를 말하는 7번째 상에 초점을 두어 보도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1)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상을 기대하는 3상과 관련한 보도 자료는 14편 중, 11편을 차지했다. 그리고 해당 보도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의 학습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2008년 3월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교육 살리기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관성이 문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준>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혜로워진 학부모상이 이명박 정부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같은 맥락에서 4월에는 자녀 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고 하는, 학부모서비스 포털 사이트가 등장한다.

2009년의 보도 자료는 모두 공통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9년 5월에는 학부모정책팀을 설치하였다.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충실한 가정교육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알렸다. 9월에는 직접 학부모를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좋은 학부모교실’을 안내함으로써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학부모상 정립과 가정교육 기능을 회복하여 심신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학교교육 참여 및 교육정책 이해 분야라고 밝혀두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국가의 학부모 교육 방향이 자녀 교육과 공교육 참여에 향해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에는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공개와 함께 학부모회 지원 사업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해당 사업에서도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기대했다.

<표 IV-1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학부모 교육의 내용과 범위

제시한 학부모 교육의 예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중,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009.11.09.)	-자녀교육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건전한 자녀교육관,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이해 및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등 실용적인 자녀지도 프로그램)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육(대입전형방법, 학교자율화와 고교다양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0.02.05.)	-자기주도적 학습법, 입학사정관제, 창의·인성교육 지도법,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공모분야의 학부모교육 분야 공모내용 예시 (2010.11.30.)	-자녀교육 및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학교 참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자녀교육 길라잡이 (2013.03.06.)	-4개 분야 42개 주제(부모의 역할, 자녀와의 소통법 등): 바르고 안전하게 키우기, 꿈을 키우는 교육,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표 IV-13>에 제시된 학부모 교육의 범주 외에도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 교육을 담아낸 경우가 있다. 2010년 11월에는 ‘튼튼한 학부모 바람이 학교에 불어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 학부모 학교 참여 공모 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새로이 하고 표창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 중 학부모 교육 분야에서 뽑힌 우수상은, 학부모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존의 학교 중심 봉사 형태에서 벗어나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해당 사례의 최종 목표는 자녀의 올바른 인성함양이었다. 아버지참여 분야의 우수상은 전문직 종사자 아버지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진로 교육에 도움을 주었으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또 아버지와 함께 하는 캠프를 체육과 음악, 영화라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2010년에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 및 평가체제 혁신 방안’이 대통령이 참석한 교육개혁 대책회의 제 1호 안건으로 채택된다. 같은 해 1월에 먼저 발표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과 흐름을 같

이 하여, 창의·인성 교육의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인성교육이 중시되는 대학 진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학생·교원·학부모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밝혔다. 자녀교육 경험이 많은 학부모를 선발하고 양성하여 강사로 활용할 계획도 덧붙였다. 앞선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2009), 학부모회 지원(2010)도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것임을 말해, 학부모 학교 참여와 학부모 교육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켰다. 온라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 지원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결국은 창의·인성 교육의 종결점이 대입입시라는 점이 어딘가 모순되어 있다.⁴²⁾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형성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창의성과 인성 함양 교육의 목표로는 되어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교육정책 설명회, 대입설명회, 대입 반영 방식 안내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입시 경쟁의 순환 고리 속에서 인성교육은 대입경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뿐이고, 창의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알게 된 학부모는 대입 설명을 듣는 것으로 건전한 교육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⁴³⁾

2010년에는 학부모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 교육 확대, 역량 강화에 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011년에는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했다. 또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정책중점연구소인 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어 2013년에는 각종 학부모 교육 자료의 발간과 함께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통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평생

42)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 및 평가체제 혁신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 7)에는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가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 (하반기 5천명),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등을 통해 창의·인성교육 내용 및 대입반영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43) 이명박 정부는 경쟁시스템을 벗어나거나 완화시키지 못하고 경쟁의 논리 내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정화(2009: 484)는 인재대국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육개혁이 평등성보다는 수월성의 추구에 초점을 두었으며 실용주의적 입장을 띠고 있다고 말하였다.

교육진흥원이 2013년에 공동 발간하고 개정한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잡이’와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에는 자녀교육과 더불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11개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는 모두 학부모들을 교육시킴으로써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낮은 수준의 자녀교육을 해내는 힘을 기르고,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겠다는 공통적인 목표와 내용을 가진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한 학부모 계몽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상을 그려낸 7상과 관련한 보도 자료는 14편 중 10편을 차지했다. 그리고 학부모의 공교육 협조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는 학부모와 관련된 보도 자료에서 거의 매번 빠짐없이 꾸준히 등장하였다.

2009년에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형태로 학부모를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 녹아들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자리를 학부모에게 열어 놓게 되면서, “행정업무 보조 인력”으로서 초빙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는, 보조 인력의 배치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학부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노렸다. 학부모를 학교 현장에 초대함으로써 기존의 의도대로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를 알아가고 더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육적인 책임과 업무를 학부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사교육 경감대책이라면서 학부모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외치는 당시 상황과 정책이 학부모 학교 채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워 했다.⁴⁴⁾ 해당 연도

44) 여성신문(2009.06.19.)의 기사에는 학부모 방과후코디네이터 채용 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정부 각각의 입장이 담겨 있다. 공교육 신뢰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린

에는 학부모정책의 청사진이라는 학부모 정책 시안 공개와 함께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학부모회 지원을 통해서 학교와 학부모의 긴밀한 동반 관계 형성을 기약하기도 한다.

2010년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학부모 강사 요원의 교육정책 설명회 투입,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 발표 및 표창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학부모는 학교에 재정과 노동을 수동적으로 지원하던 과거 사친회, 어머니회 등의 이미지에서 조금은 벗어나,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학부모가 아직은 비활동적인 ‘학교조력자담론⁴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월에는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해당 사업의 목표는 학부모 대다수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중점지원내용은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이 있는데, 보도 자료에서 예시로 든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⁶⁾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의 전문성을 발휘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부모 역량 계발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독서지도,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코디맘 정책은, 같은 해 5월 3일에 먼저 보도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은,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개념이다. 이 지원 사업은 2008년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45) 학교조력자담론이란, 학부모를 학교의 조력자 수준의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의 담론이다(이종각, 2016: 176).

46)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02.05.)에 발표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추진계획 요약’ 옮김.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참관 및 평가, 학교교육 계획 수립 시 참여 등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지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시 등)

같은 해 11월에는 ‘튼튼한 학부모 바람이 학교에 불어오고 있다’는 말과 함께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를 표창 및 발표하였다. 우수사례 공모는 학교교육참여,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아버지참여의 4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모내용 예시를 통해 해당 정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학부모 학교 참여의 방향을 볼 수 있다.

공모분야	공 모 내 용
① 학교교육참여	○ 학교교육 계획 수립시 학부모 의견제시 활동 ○ 학급, 학년단위의 학교교육 모니터링
② 자원봉사	○ 취약계층 학생 지원 자원봉사 및 체험활동 ○ 학생지도 등 학교교육 지원 자원봉사
③ 학부모교육	○ 자녀교육 및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육 ○ 학교참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아버지참여	○ 학생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 아버지 대상 학부모교육, 아버지 중심의 학생보호 활동

<그림Ⅳ-1> 학부모 학교 참여 공모분야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11-30: 2)

2011년은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정책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참여공간이 생겨나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이 출범하였다. 모니터단 500여 명을 공모 후 선정하여 출범식 및 연수를 진행하고, 교육정책과제 모니터링, 설문조사 참여, 교육관련 위원회 참여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학부모 모니터단과 소통하는 목적은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방안 또한 중점적으로 연구한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통과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

잡이를 발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밝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업무보고(2011년 발행)에서는 선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학교-학부모가 상호 소통하는 교육현장 구현을 위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를 정착하고, 교내 학부모실 설치 및 교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연수를 통해 그 여건을 마련하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 정책 모니터링과 교육(재능)기부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이상의 자료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변화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수요자로 인식함과 동시에, 학교 참여라는 형태로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학부모에게 부여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공교육 협조의 관점이 반영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10개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부모 정책의 중심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한 공교육 살리기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출발점은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이하 <기준>이라 칭함)에서 제시된 ‘기대하는 학부모상’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팀과 정책 자료가 최초로 생겨난 이명박 정부⁴⁷⁾의 학부모 정책 자료를 대상으로 비판적인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준>과 함께 등장한 ‘기대하는 학부모상’의 타당성과 논리 구조들을 <기준>과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와 함께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5월에 최초의 학부모지원 전담조직으로 학부모정책팀을 설치하고, 8월에는 학부모 정책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학부모 정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언급이 더 많아졌다. 학부모 정책의 추진 배경은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인식 제고, 학부모 교육 참여 욕구 증대, 종합적인 학부모 정책의 부재이다.⁴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외부 연구팀에 의뢰하였다. <기준>은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그 시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준>의 학부모상이 나오기까지의, 이명박 정부 학부모 정책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로써의 학부모 교육과정을 있게 한, 일련의 앞선 과정들을 보기 위함이다. 앞선 IV장에서 학부모를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에 따른 학부모 지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판단되었는지 보았다. 학부모를 국가 교육의 대상으로 포섭하고, 행정적인 절차와 결정

47)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맡겨 학부모 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 운영하게 하였는데,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투자하여 연구진들이 학부모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한 것도 이와 연관된다.

48)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11.09.)에 발표된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추진 배경 옮김.

에 따라 학부모 교육과정기준이 생겨난 것은 중요하다. 학부모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덕행을 교육과정 형태의 <기준>으로 지정함으로써, 학부모에게 특정 자세를 권고할 수 있는 위치와 힘을 국가가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준>은 현재까지 한국 학부모 정책에 있어 최상위 문서로써 의미를 지닌다.

<기준>에서 기대하는 한국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다음의 7가지이다(홍후조 외, 2012: 140).

- 첫째, 심신이 건강한 학부모
- 둘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학부모
- 셋째,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학부모
- 넷째,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학부모
- 다섯째, 자녀의 대입성공을 넘어 인생행복을 지원하는 학부모
- 여섯째,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학부모
- 일곱째,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

이에 해당 교육과정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자녀의 행복을 기원해주고, 끊임없이 배우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학부모가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의 지향점이다.

학부모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한 학부모상을 분석해 본 결과, <기준>에서 제시한 7가지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었다. 1, 2상은 도덕적 선언으로써 학부모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와 도리를 명시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3, 4, 7상은 학부모가 도달해야 할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5, 6상이 학부모의 궁극적 목표로써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내부에서 7가지 학부모상끼리의 불균형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신이 건강한 학부모상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덕한 학부모상(1, 2상)은 학부모의 몸과 마음의 안정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두 가지 상이 굳이 분리되어 7가지 학부모상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은 도덕적 선언으로써의

역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혜로운,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공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학부모상(3, 4, 7상) 세 가지는 다른 상들에 비해 확실히 많은 출현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학부모 정책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의 역할 상, 실천적 요소를 지닌 이 세 가지 학부모상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더 강조한 것이다. 학부모의 심신 치유 강조, 학부모의 학습 상황 형성, 학부모의 책임 실천, 학부모의 공교육에의 기여로의 실천적 방향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 이와 같은 학부모상의 편중 구조는 <기준> 외부의 <2009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의 분석 결과, 정부는 학부모 정책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임과 더불어 교육 참여의 책임을 지웠다. 또 교육 계몽을 통해 공교육에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장려했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회유 방법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학부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확대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들에서는 교육 계몽, 공교육 협조, 공동체 배려 등의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 자료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정부가 학부모 정책을 통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공교육에의 협조를 학부모 교육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라는 고객에게 자녀와 관련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깨우침을 주고, 이를 통해 공교육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준>에서 제시된 ‘기대하는 학부모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학부모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보았다. 국가에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또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책임지려함으로써, 학부모를 보는 관점이 정돈되고 새로 생겨났다. 새로이 나타난 학부모 정책과 <기준>으로 인해 학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었는지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학부모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 지식을 배워야 지혜로운 학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 학부모 사이뿐만이 아닌 학부모 교육 관련 주체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둘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본능적인 애정을 받아들이되 자녀로부터 독립된 한 명의 성인으로서 학부모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학부모가 가진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인간상은 해당 교육이 나아가려는 방향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기대하는 인간상’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은 현재의 교육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기준>과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속에서의 학부모상에 대한 접근만이 이루어졌다. 앞선 논의들이 다른 학부모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부모상이나 우리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학부모상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연구의 시작점이 된다면 기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강대중(2015). **순응.확장.관리-아산의 학습생애**. 울산대학교 아산리더십 연구원 편.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열과 꿈. 푸른 숲.
- 곽영순(2009). **질적연구**. 교육과학사.
- 교육부(1997).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총론 해설서**. 교육부.
- 권두승(2000).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성인학습 지도방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광웅·문수경(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지, 13(1), 71-84.
- 김봉제(2015). **맞벌이 부모 학교 참여 지원방안 연구**. 학부모연구, 2(2), 1-23.
- 김순남(2010). **사교육 진단 및 대책(I): 원인·문제 진단 및 종합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김승보(2015). **학부모의 교육 참여: 현실과 과제**. 학부모연구, 2(1), 1-23.
- 김영경·이희수(2011). **방송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 계속학습 활동에 나타난 학습지속요인**. 평생교육학연구, 17(4), 171-204.
- 김중서, 김신일, 한승희, 강대중(2009).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 김천기(2009). **이명박정부의 공교육정책 지배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교육부실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9(1), 81-102.
- 김희연(2013). **유아교육에서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2), 521-544.
- 남상우(2007). **평창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 보도의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5), 131-147.

-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2012). **따뜻한 사회를 위한 공생발전(2011 이명박 대통령 말씀모음)**. 문화체육관광부.
- 류영숙(201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 연구, 29(4), 615-636.
- 박효정(1999).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용 읽기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반상진(2013).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4), 263-287.
- 백우정·최종덕(2011). **시스템사고를 통한 사교육비경감정책 평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12(4), 5-34.
- 서덕희(2016). **학부모 운동의 변천에 관한 한 교육인류학적 소고**. 한국 학부모학회 창립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집, 3-33.
- 서덕희(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교육인류학 연구, 6(2), 55-89.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5). **학부모 친화적 인프라 구축**.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2014).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교육**. 교문사.
- 서울학부모지원센터(2011). **학부모 정책 관련 외국 사례**. 서울: 서울학부모지원센터.
- 서정화(2009).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추진 진단 및 시사점**. 교육행정학회지, 27(2), 481-499.
- 서현석(2014). **한국 학부모 교육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일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363-380.
- 신숙자(2016). **학부모가 바라보는 학부모**. 한국학부모학회 창립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집, 67-73.
- 신숙재·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안선희(2013).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4), 123-156.
- 양희준(2013). **교육정보공개법 제정 과정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유영주(1995). **가정학 원론**. 신광출판사.
- 이경아 외(2010). **지역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진흥원.
- 이기형(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106-145.
- 이명천·김요한(2005). **광고연구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호(2010). **학부모지원 왜 필요한가**. 한국인간발달학회.
- 이종각(2016). **교육패러다임 전환기의 교사-학부모 관계의 재구성 과제**. 한국학부모학회 창립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집, 163-188.
- 이종각·황성희(2016). **‘학부모의 날’ 행사와 변혁적 교육발전**. 한국학부모학회 창립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집, 35-63.
- 이종각(2014). **(부모 학부모 교육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책**. 원미사.
- 이종각(2013).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한국교육, 40(4), 121-153.
- 이현아(2012).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5), 149-161.
- 장경원·이종미(2014). **긍정적 탐구(Appreciative Inquiry)를 활용한 참여형 학부모 교육 사례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2(4), 55-81.
- 전세경 외(2014). **건강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전광역시교육청.
- 전애영(2010). **한국문화의 탄력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상담과지도, 45, 361-374.
- 정승혜(2015). **광고 연구의 질적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현주 외(2013).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및 피해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평가**. 청소년상담연구, 21(2), 149-180.
- 조용환(2016). **질적 연구 자료분석 방법**.
- 조용환(2011). **다문화교육의 교육인류학적 검토와 존재론적 모색**. 교육

- 인류학연구, 14(3), 1-29.
- 주영효·박균열(201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공약 이행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4), 379-408.
- 진정숙(2014). **학교기반 학부모교육의 실태와 유형 연구: 경기도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갑부(2014).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 최상근(2009). **학부모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2008). **이명박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기조와 추진전략 분석: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5(2), 127-154.
- 최운선(2014). **비판적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 통계청.
- 한승희(2010). **평생학습 사회 연구**. 교육과학사.
- 함성득(2012).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 나남.
- 홍은숙(2015).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 진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33(4), 227-250.
- 황성희(2015). **학술지 『교육학연구』에 나타난 학부모 연구의 동향: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3(4), 253-282.

2. 국외 논문 및 단행본

- 노먼 페어클로(2003). *Analysing Discourse*. 김지홍 역(2012). **담화 분석 방법**. 경진.
- 노먼 페어클로(2001). *Language and Power*. 김지홍 역(2012). **언어와 권력**. 경진.
- 대니얼 라이프 외(2007). 배현석 역.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스테판 티스처(2000). *Methods of Text and Discourse Analysis*. SAGE; 남상백 역(2015). **텍스트와 담론 분석 방법**. 경진출판.

- 요헨 글래저 외(2012). 이상수 역.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켄 로빈슨(2015). 정미나 역(2016).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학교혁명**. 21세기북스.
- 크리스 바커 외(2014). 백선기 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Colin J. Titmus(1989).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Pergamon press.
- Eduard C. Lindeman(1926). *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강대중·김동진 역(2014). **성인교육의 의미**. 학이시습.
- Sharan B. Merriam(2014). *Adult Learning: Linking Theory and Practice*. John Wiley&Sons; 최은수 외 역(2016).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아카데미프레스.

3. 국내 인터넷 자료 및 기사

- 여성신문(2009.06.19.). **주부 일자리 창출이나, 엄마 길들이기나**.
(<http://www.womennews.co.kr/news/40428>).
- 이정우(2005). **담론의 매혹, 주체들의 백가쟁명**. 한겨레, 2005.01.05.
(http://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22.html).
- 정진희(2014).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등교육 정책**. 마르크스 21.
(<http://www.marx21.or.kr/article/allView.marx?articleNo=49>).
- 파이낸셜뉴스(2009.12.06.). **오바마 한국 교육열 끝없는 사랑**.
(<http://www.fnnews.com/news/200912061811553356>).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0). **제안 답변서**
(blog.naver.com/socrazyfree/40108241988).

분 석 자 료

1.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0513 교과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 본격 착수

20090609 4,000명의 학부모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행정업무 보조인력 로 초빙된다

20090714 교과부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추진한다 전국 340개 단위학교의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지원

20090812 교과부, 학부모 정책의 청사진 제시 - 전국 5개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학부모 정책 확정 예정

20090917 교과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지역으로 직접 찾아간다

20091109 교과부, 전국 2,000개 우수 학부모회에 500만원씩 지원

20100205 학부모, 학교교육 개선에 직접 참여한다

20100518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방법 및 평가체제 혁신 방안 마련

20101130 학교에 든든한 학부모 바람이 불고 있다

20110401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교육정보를 모았습니다! -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www.allparents.go.kr 개통

20110404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소통의 창구 마련

20111024 정부 정책중점연구소 학부모정책연구센터 개소

20130306 행복한 자녀교육! 좋은 학부모는 먼저 공부합니다. - 행복한 자녀교육 길라잡이 발간,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통

2. 정부 정책 자료 및 사이트

- 한나라당(2007).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공약집. 한나라당.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a).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시안].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b).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안].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c).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a). 2012년 업무보고(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b). 2012년 업무보고 참고자료(주요 정책 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3).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정책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국무총리실(2008).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무총리실.
- 문화체육관광부(2013).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제9권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문화체육관광부.
- 이경숙(2008). 성공 그리고 나눔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정책과제.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홍후조 외(2012).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 서울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홍후조·백혜조·민부자·변자정·조호제·하화주·장소영·이혜정(2013). 학부모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31(2), 171-198.
-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http://17insu.pa.go.kr/>).

Abstract

Critical content analysi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Curriculum Standards for School Parents'

Eun Cho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standards for students' parents was conducted to establish curriculum standards for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par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desirable students' parents characters' in the curriculum standards. I tried to figure the structure and validity of the desirable characters out with the standards, policy documents and press release of related ministry.

keywords : Students' parents policy, Students' parents education, Curriculum standards for students' parents, Students' parents character, Desirable students' parents character, Lifelong education, Content analysis

Student Number : 2014- 20880